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Spring 2012
Vol.04

‘뭘 했니?’ 부산문화, 정치에게 따져묻다



문화인, 정치에 바란다



정치가 눈여겨 봐야 할
부산문화예술의 현안과 과제



기획좌담 / 각 당의 문화정책



Contents

Vol. 04
Spring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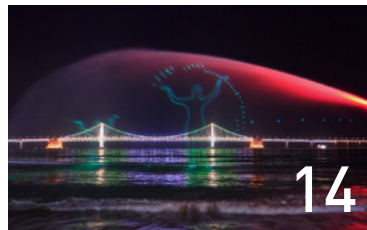


Photo Essay 5 포토에세이 부산, 늘 있어왔던 일

Cover Story 정치와 부산문화
14 '뭘 했니?' 부산문화, 정치에게 따져묻다
18 문화인, 정치에 바란다
20 정치가 눈여겨 봐야 할 부산문화예술의 현안과 과제
26 기획좌담
34 새누리당 문화정책
35 통합진보당 문화정책

Cartoon 36 카툰 하마탱의 만화로 쓰는 시

Criticism & Review Hot Review
38 '쇼'가 아닌!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43 싹틔줄 인문학, 골목을 향한 지극한 살림의 의지

Close Criticism 장르별 비평
48 미술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
52 생활문화 건물을 통해 문화복지를 사유하다
56 문학·출판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비평들
58 영화 영화 속에 재현된 부산의 이미지
62 연극 M.I.ZI Theater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66 춤 허경미 무용단 Red Step의 〈와치다〉

Culture + +사람
72 화제의 예술인 대안공간 너머 대안활동을 생각한다
78 젊은 그대 젊은 이야기꾼 주체의 등장-배길남
82 +공간 희망을 꽃피우는 지역공동체 희망세상
87 +네트워크 지역문화지 〈안녕 광안리〉
92 +세계문화 도쿄 코엔지의 의미 있는 즐거움

98 부산문화재단 NOW
100 편집위원 칼럼 부산 문화예술의 희망, 그 온도는?

부산, 늘 있어왔던 일

이인미
대학에서 건축을, 대학원에서 영상학을 전공하였다. 과거의 흔적이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부산에서 일상적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변화하는 도시의 숨 가쁜 생명력을 따라잡기 위해 사진으로 도시를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주말 뮤지컬〈광화문 연가〉를 보았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20대 때의 풋 익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작은 바람결에도 흔들리는 청춘들의 사랑이야기. 이 뻔한 스토리의 뮤지컬에 가슴 절절해 지는 것은 누구나 얼굴 붉어지는 유치한 스무 살을 가슴에 안고 살기 때문이다.



세상은
잠시 쉬어갈

여유도
없이

바쁘게

변한다.



세상은 잠시 쉬어갈 여유도 없이 바쁘게 변한다. 어제까지도 버젓이 있었던 동네가 하루 밤 사이에 허허 벌판이 되어 있다. 옆집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다. 한가로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사이에 미래의 도시가 눈앞에 솟아오르기도 한다.





Photo Essay

부산, 늘 있어왔던 일

서동



인정마을

꼬불꼬불 골목길을 돌아 올라오는 우편배달아저씨의 손으로 전해지던 반가운 편지를 이제는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지는 휴대 전화가 대신하지만, 빨간 우체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골목길 가득 아이들 소리로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햇살 좋은 날 의자에 걸터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인사를 나누는 여유가 있는 골목길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분홍빛 페인트로 칠한 재래시장의 카바레 입구에서는 늦은 아침을 먹고 나왔을 법한 점심나절부터 음악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오래된 거울 너머 계단으로 첫 번째 손님이 올라오고 있다.

분홍빛

페인트로

칠한

카바레

입구에서는

늦은 아침을

먹고 나왔을

법한

점심나절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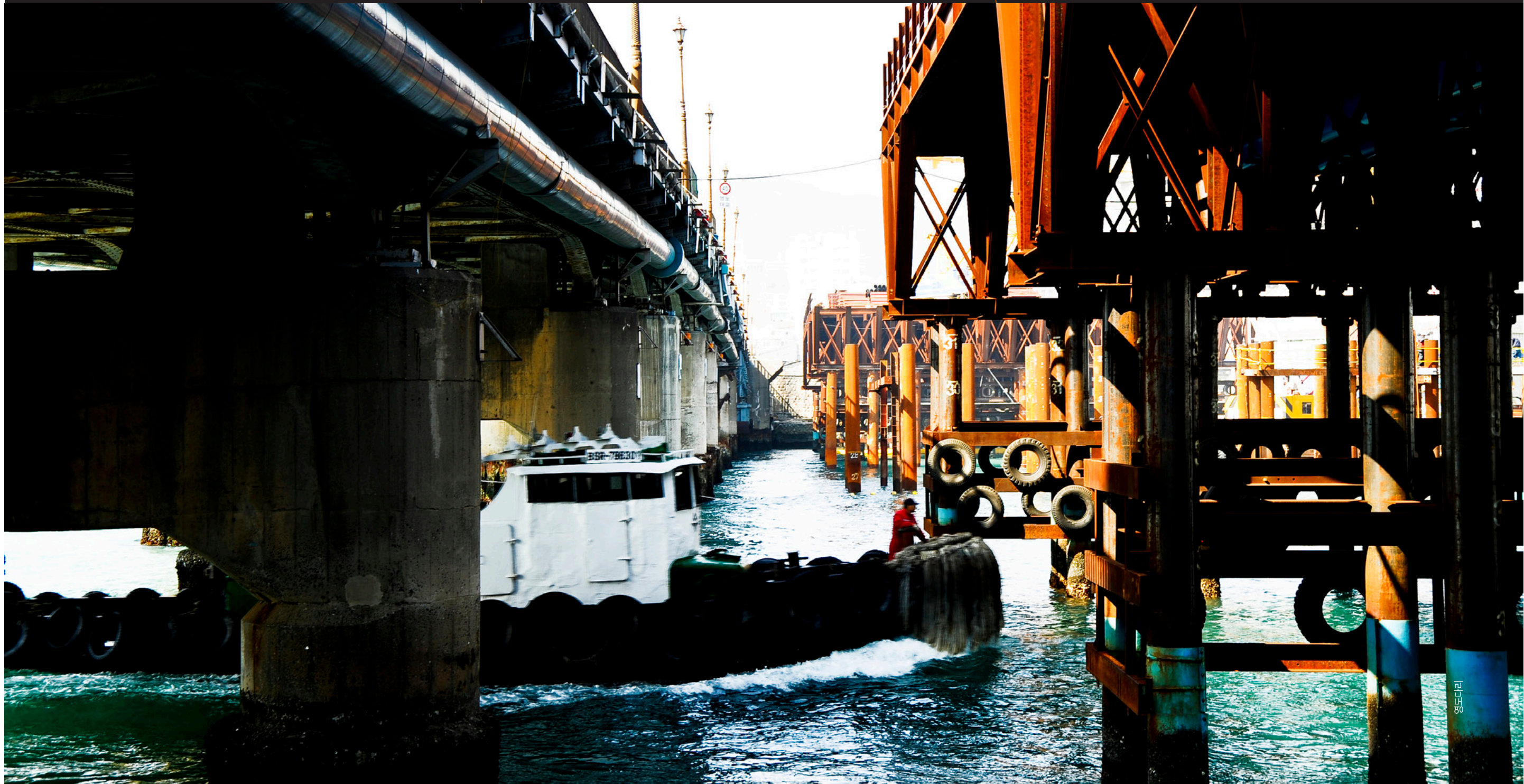
음악소리가

흘러

나온다.



부전시장



이렇게 묵묵히 각자의 시간으로 살아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가 커다란 바퀴처럼 시간을 담고 굴러가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억들이 더 아련히 가슴에 남는다.

Cover Story

부산

부산문화

부산문화예술

좌담

‘뭘 했니?’ 부산문화, 정치에게 따져묻다
문화인, 정치에 바란다
정치가 눈여겨 봐야 할 부산문화예술의 현안과 과제
기획좌담
각 당의 문화정책

문화정책

뭘했니? 정치에게 부산문화, 따져묻다

최학림

『공감 그리고』 편집주간

부산일보 논설위원

사진제공

부산콘텐츠마켓

부산광역시

정치인에게 표가 더 중요하지 문화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가끔 문화를 사랑한다는 포즈를 취한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기가 문제다. 너무 지나치면 그르치고, 반대로 너무 무관심해도 그르친다. 또 눈꼽만치 사랑하면서 완전 사랑한다고 너스레를 떨어도 꼴볼견이다. 정치와 문화의 가장 좋은 관계는 뭘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원칙 혹은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01 '위로부터'의 과욕

말 그대로 지나친 것은 지나친 것이다. 문화에서 뭘 하려면 때, 인적 구성, 돈, 전반적 공감대 등에 걸쳐 무르익어야 할 것들이 참 많다. 성급하면 탈난다.

2005~2006년 광안리에서 있었던 일(?)

2005년 6월 말 제1회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렸다. 행사 조직위 출범식은 그 한 달 전, 매우 이례적으로 부산이 아닌 서울의 국회에서 열렸다. 조직위원장은 이 행사를 주도한 당시 한나라당 A의원이 맡았다. 부산 행사이니가 공동 명예 조직위원장으로 부산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장이 2명이나 위촉된 것 또한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다음해 2회 행사 역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렸는데, 사람들로 붐비는 부산바다축제에 갖다 붙여 행사 기간이 8월 중순으로 변경됐다. ‘오락기와 컴퓨터를 갖다놓은 그다지 새롭지 않은 디지털축제’라는 일부의 시큰둥한 관전 평은 그래도 괜찮았다. 행사 뒤, 그해 예산 9억 원 중 1억 원을 소위 오락실게임 업체에서 받았다는 시비와, 그로 인해 진행된 정치 공방과 검찰 조사는 치명적이었다.



부산콘텐츠마켓 개막식



바다 빛 미술관 전경

행사가 그만 2회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 행사는 부산 문화 저변과 소통 이 부족한 채, A의원이 정치의 힘으로 ‘위로부터’ 만든 전형적인 행사였다. 2년간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예산을 이 행사에 지원한 부산시는 시민들의 비판을 들었다.

부산콘텐츠마켓으로 흡수 통합

2006년 부산국제디지털방송콘텐츠마켓이라는 또 다른 행사가 역시 광안리 해수욕장에 ‘뗏다’. 이 행사는 10월 중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맞춰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후원했고, 주최는 앞서 2회로 막을 내린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의 조직위였다. 그러나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가 흔들리면서 이 행사 또한 허망하게 1회로 막을 내렸다.

이듬해인 2007년 5월 제1회 부산콘텐츠마켓(2007 BCM)이 열리게 됐다. 이 행사는 서둘러 막을 내린 앞의 두 행사(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 부산국제디지털방송콘텐츠마켓)를 합친 것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출발했다(예산은 방송통신위원회 5억 원, 부산시 3억 원 등). 공동 조직위원장은 역시 A의원원과 부산시장이었고, 집행위원장은 부산과 그다지 관계가 많지 않은 박준영 전 방송통신위원이 맡았다.

그러니까 부산콘텐츠마켓은 디지털문화, 방송콘텐츠 쪽에 정치적 힘이 이왕에 벌여놓은 판을 정리 수렴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와는 달리 부산 문화관 ‘아래로부터’의 무르익은 논의 없이 ‘위로부터’ 진행됐다는 혐의가 없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후 부산콘텐츠마켓은 부산 영상산업 토양 강화에 대한 시민적 기대와 새 집행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다.

바다 빛 미술관

2005년 이후 2년간 광안리 해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 2007년 4월 개관한 광안리 해변의 바다 빛 미술관도 그중 하나다. 부산시는 2004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안리 경관 조명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게 2005년 40억 원대의 고가 미술품 설치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여기서도 예의 정치인이 거명된 가운데 시시비비가 불거졌으며 작품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설치 장소에 대해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에서는 ‘익힘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02

정치인들이 힘을 써야 하는 시점은 큰일이 빠격거릴 때이다. 그러나 뻔히 보고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미필적** 혹은 고의적 무관심이라고 해야 하나.

무산된 국립도서관 부산분관

부산은 책 안 읽는 나라에서, 도서관이 최고 부족한 도시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5년 부산시는 국립도서관 부산분관 유치에 나섰다.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2007년 청와대의 부산 인맥이 움직이면서 일이 잘 되는 듯했다. 부산이 도서관 수 및 장서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등의 논리가 동원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1순위 후보지’ 부산은 희한하게 ‘타당하지 않은 곳’으로 뒤바뀌었다. 2008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퇴짜를 놓은 것이다. 부산시는 해양 영상분야 특화와 사업비 축소라는 논리로 재무장했다. 다행히 2009년 5월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매우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려 청신호가 켜진 듯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다시 KDI의 ‘문제 있는’ 재조사가 이 청신호를 무시해 버려 국립도서관 부산분관은 현재 무산된 상태다.

국책기관이란 곳도 그렇지만 당시 부산 국회의원들도 새 정권의 풍향을 감지하면서 국립도서관 부산분관 문제에 애써 무관심했다. 정권이 바뀐 마당에 죽은 아이 뒷 만지기 식에 매달릴 수 없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부산 문화의 중요 안건은 사장된 것이다.

지지부진한 북항 재개발

문화는 확장하고 있다. 도시 공간을 바꾸는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도시 모습을 혁신하는 부산항/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이며 창조도시의 거대한 실험이랄 수 있다. 이 사업이 거론된 것은 역시 지난 노무현 정부 때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북항 재개발 사업을 ‘한국형 10대 뉴딜사업’으로 꼽으면서 국비 지원을 약속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공수표였다. 총 투자 예상액 10조 원 중 기간시설 사업비로 5천200억 원이 들어가는데 2011년에서야 처음으로 고작 300억 원이 투입됐을 뿐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즈음, 부산 민심을 무마하느라 국무총리실이 나서 올해 3천7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거라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지만 그중 국회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은 1천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 확보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세월이다. 이런 국면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섰어야 하는데 부산을 외면하는 정권의 복심을 읽어버린 탓인지 그렇지 않았다. 현재의 총선 국면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기 코가 석 자인 꼴이 돼 버려 북항 재개발은 강 건너 불구경인 꼴이다. 이런 전후의 사정이 부산 시민들은 아쉽다.



북항 재개발 조감도

03

축매 작용으로 충분, 그리고 <+알파>

부산 국회의원들이 부산 문화를 위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외려 그들의 지나친 공치사가 그들이 한 일을 스스로 가리는 측면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여러 일을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여러 차례 고비를 겪었다. 그중 수차례의 예산 삭감 압박이 힘들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제4회 행사 때 예산 당국은 1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숯제 영화제를 열지 말라는 소리였다.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백방으로 뛰어 당시 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던 부산의 김진재 의원을 만나 삭감된 10억 원을 되살렸다. 영화제 초창기의 예산 확보는 ‘김동호의 원맨쇼’로 일컬어지는데 4회 때 당시 개막작 ‘박하사탕’처럼 부산 국회의원이 박하사탕 같은 시원한 지원의 막후 역할을 한 것이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산 최초의 국립 문화기관이다. 2001년 6월 유치에 나서 2008년 10월 개원까지 만 8년이 걸렸다. 부산시는 모범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시민 추진위도 적극 활동했고, 부산 국회의원들은 2003년 600억 원의 건립비를 확보하는 데 몫을 했다. 그렇게 세워진 국립부산국악원은 지금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의 연장(2010년에서 2016년까지) 및 부산국악방송 개국 지원,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과 송도해수욕장 리모델링 지원, 구 문화회관과 도서관 건립 지원, 서면 젊음의 거리 특화사업 지원 등등에 걸쳐 여러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할 일을 했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을 그들이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5년 건립 목표로 부산국립극장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 부산시민과 함께 B국회의원이 적극 나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축매 지원 작용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 정치인의 선거 당락 여부에 따라 부산 문화의 주요 사안이 있다가 없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치와 문화의 관계에서는, 정치가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는 ‘팔길이 원칙’이 고수돼야 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르게 하는 오묘한 마술이 정치라고 했으니. —

문화인, 정치에 바란다

미술계의 구조 변화를
위해 화랑 지원책 마련하자



강선학
미술평론가

미술은 불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 불거리는 다양한 사고의 전지한 열광들이다. 그러나 오늘의 미술은 교양이나 상식을 확인하거나 대중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소비재로서 생산되는 상품이 되고자 한다. 그렇다고 정부나 페트론의 지원이 소비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인간이 가진 다양한 사고의 급진성이 주는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의 기능 때문이다. 효율적 지원책을 입안하는 것도 이에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 미술정책은 대체로 작가와 미술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정책은 구조적 개선이나 향상보다 언제나 시급한 사안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단선적이거나 일시적이다. 이제는 장기적이거나 구조적인 정책지원으로 전환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그것은 작가발굴과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소장자(시민)를 하나로 묶는 화랑지원 정책이다. 작가 개인의 작품이 사회적 장치 안에서 관계를 맺게 함으로 기존의 미술계가 가진 생산과 시장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랑은 지원책에 준하는 자기비용만으로 기존운영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전시와 작가발굴, 시장과의 연대라는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다. 지원정책은 일정기간 발굴한 작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화랑에 의무를 부가함으로써 작가들의 지속적 활동과 시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해마다 졸업하는 작가 지방생들에 대한 사회적 장치이기도 하다. 화랑은 기왕의 기획전시를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말랑한 장식용 미술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도 된다. 소장자 역시 화랑의 이윤이 우선되는 작품보다 장래를 기대하는 작가들의 작품이나 검증 가능한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화랑, 작가, 시장, 소장자 모두에게 지속적 활동과 유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화랑의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만 있으면 된다. 지역 미술계와 무관한 미술행사에 집중된 단발적인 거액 지원보다 미술계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화랑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하다.

문예진흥기금 지원 지방
확대를



김진수
부산일보 기자

정치·경제 등 사회 중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의 엄연한 격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 상대적 소외 장르인 문화 분야에서 정부 지원의 지방 확대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이 일천한 현 정권 들어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은 확실하게 후퇴하고 말았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정부의 시혜가 내려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 결코 있지 않다. 현실과 현장 속에 있는 지역 주민들, 각별한 애정과 차별을 누구보다 몸소 겪고 있는 개별 문화인들의 의지와 실천력에 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온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제도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이 그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다. 지역의 문화인들은 총선에 후보로 나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에 편중된 문예진흥기금의 개선을 위한 복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촉구해야 한다. 그들에게 문예진흥기금의 지방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알차게 채울 수 있는 지역문화계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문예진흥기금의 확대에 그칠 수 없는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지역문화가 자체적인 동력을 갖고 활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쩌면 지방의 문화를 전국 차원에서 그 존재감을 알려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 문화적 문제의식을 추궁해보자.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추동하자.

문화인,
정치에
바란다

문화예술의 발전의 기회를
창작의 주체자들에게



최영석
영화감독,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 요즘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시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보자면 영화의전당은 물론 부산국립극장과 같은 문화공간들이 이미 건립되었거나 조만간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다른 문화 예술 공연장의 확대 또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을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의 불모지라 불리던 부산에도 격세지감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단순히 거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공간 확장만으로는 결코 질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앞서 언급한 훌륭한 공간들에 얼마나 질 좋은 콘텐츠를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어떻게 부산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우수하고 뛰어난 공연작품들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을 완성시켜 다시 부산의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처럼 작품을 매개로 한 창작자와 시민들 사이의 상호교류 속에서 진정한 부산 문화예술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부산의 문화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은 거대한 공연장 건립 같은 전시행정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이런 비합리적인 관행들로 인해 문화예술의 발전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은 문화예술 발전의 진정한 주체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가능성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제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를 부산의 창작자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고 어떻게 그들의 창작의지를 고취시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의 실질적인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때만이 부산문화예술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부산이 문화 불모지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련 전문
보좌관제도 도입



김현국
시인·문화공간·문화예술수익자 대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통'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소통'이 담보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 불통'의 시대에 '문화 소통'은 유권자들에게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큰 소통의 한 축'이다. 지역 선량들에게 제언 하나 하겠다. 각 지역구 실정에 맞게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관련 전문 보좌관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문화생산자와 소비향유자들 간의 실질적 소통업무를 담당하면서 문화정책 수립 및 입안부터 시행, 운영 및 관리지원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관계 업무를 이들에게 총괄케 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문화 전문 보좌관으로 하여금 법정동 단위의 소규모 문화거점공간을 확보하여 1. 문화생산자들의 창작 및 공연전시 공간 지원, 문화예술 강좌 및 세미나 정례화 2. 원로문화예술인의 문화 사랑방 제공, 상시적인 지역 문화예술 현안 자문 3. 청년문화생산자들의 인큐베이팅 공간 확보, 가치 있는 미래의 문화예술 생산자원 지원 4. 문화 소비자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향유를 위한 지원 등 원스톱 문화소통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다.

기왕이면 해당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현장전문가를 선임하여 지역 문화예술 전반의 현안들을 챙기면 좋겠고, 이들이 서로 모여 부산문화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큰 틀의 그림도 아울러 그릴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겠다. —

정치가 부산 가 문화 예술의 눈여겨 현안과 과제 봐야 할

이승욱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인텔 광안리 발행인, 문화기획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이고 연말에는 대선까지 이어진다. 한 해 동안 우리사회는 정치적 이슈로 술렁거리고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이 제시될 것이다. 통과예레처럼 4년이나 5년 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모든 절기가 그 반복과 순환의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듯 이 시기에 부산 문화예술의 현안과 과제를 되짚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지역문화 균형발전의 과제 : 부산국립극장의 건립

부산국립극장 건립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한 하얏리아 미군부대 자리에 조성하고 있는 시민공원 내 부지를 부산시가 제공하고 중앙정부가 공연시설을 설립하는 안이다. 국립극장은 좁게는 현재 서울 남산에 위치한 국립중앙극장을 말하지만 일반적 의미로 확대하면 중앙정부가 국고나 기금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국가적 위상의 공연장을 말한다. 현재 국립으로 설치된 공연장으로 서울에는 남산의 국립중앙극장, 서초동의 예술의전당, 대학로의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중앙박물관 내의 극장 용, 명동예술극장과 청동극장 등이 있다. 지역에는 2014년 완공 예정인 광주의 아시아문화의전당, 2015년 건립 예정인 세종시 아트센터 등이 있다. 열거한 것처럼 국고나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설립한 국립공연장 시설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에는 비교적 최근 건립중인 몇 군데 시설들만 있고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는 국립 공연장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¹.

최근 부산국립극장 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도 국립공연장의 서울 편중현상을 지적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동남권을 대표하는 국립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0년 발표된 공연예술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공연시설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연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은 인구 대비 공연시설과 객석의 수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6개의 광역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최근 몇 년 간 부산의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전체 3% 수준에 그친 데 반해 서울과 수도권에는 2/3가 넘는 예산이 집중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수도권 독식과 지역 홀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부산국립극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을 거쳐 국회와 문화부에서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비유하자면 부산 국립극장은 문화예술계의 동남권 신평항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국가시설을 유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 문화정책의 수립과 결정에서 현재의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부산국립극장 건립 추진을 비롯하여 문화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지역민 전체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내야 한다.

1

서초동에 위치한 국립국악원은 서울지역 이외에도 남원, 진도, 부산 3군데의 지역분원을 두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단순 공연시설이라기 보다 국악 전통의 계승과 보존, 확산에 목표를 두고 아카이브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고려하였다.

목표와 계획을 가진 정책 입안과 실행

부산시 문화정책을 평가하며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껍데기에만 투자할 뿐 정작 알맹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는 없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려 한다. 껍데기와 알맹이, 하드웨어 대 소프트웨어라는 이분법으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부산의 현실, 따라서 적절한 문화시설 건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부산시의 역할을 간과하게 된다. 정작 문제는 문화시설의 건립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목표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설계도면 없이 부실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가까운 사례로 최근 완공된 영화의전당도 그러하다.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에 걸맞은 전용관을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16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준비된 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건축비용의 단 1%만 들여도 충분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다. 문화시설의 건립은 초기부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주체를 마련하고 이들의 주도로 설계와 건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영화의전당의 경우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전용관 건립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설계와 시공단계로 바로 비약하였다. 건물이 거의 완공되는 시점에 부라부라 재단을 설립하고 최소 인력을 확보하였다. 만드는 사람 다르고 운영하는 사람 다르다. 사정이 이러하니 영화의전당 완공 이후 노정된 많은 문제와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비가 새고 시설이 미비한 것은 고치면 된다. 하지만 영화제 운영주체와 공간 운영주체가 달라서 지속적으로 빚어질 혼란과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고의 건축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운영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공연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건축비용의 10% 이상의 연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연간 예산이 200억을 넘고 고양시 아람누리과 어울림누리는 250억 정도를 연간 사용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나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영화의전당의 경우 운영예산을 급히 늘려 60억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애초부터 건축이나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공연장 시설을 빼고 복합 상영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다행이지만 사전 계획이 없는 졸속 문화행정의 문제는 지금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북항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면서 세부 계획 없이 덩키 설계공모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지금은 거의 무산된 서울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계획을 보면서 부산에도 최고의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생각은 한번쯤 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건립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장르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운영예산이 소요되는 오페라하우스의 프로그램과 운영계획을 조금이라도 숙고하였다면 이토록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을숙도에 건립을 추진하는 제2시립미술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애초에는 부산비엔날레의 전용관을 설립하여 행사의 발전을 꾀하고 부산시립미술관의 파행운영을 막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전용관 계획은 제2시립미술관으로 변경되었다. 서부산권에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취지는 살리겠지만 제2시립미술관으로 건립하고 부산비엔날레 공간을 이전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 운영이 겹쳐 빚어지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다원예술과 청년문화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으로 제안된 남구의 미디어아트병커와 사상구의 컨테이너시티도 벌써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부실한 사전계획으로 좋은 취지와 아이디어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이제라도 부산 문화행정의 정책입안과 집행의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신불리 집행단계로 비약하는 졸속 문화행정의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충분히 검토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 한 두 명이 몇몇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전조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단체에 의뢰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정책 수립과 집행의 과정이 정립되어야만 부산 문화행정이 한 단계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기초, 민간 협력의 독립법인 설립

부산의 문화행정이 지나치게 관 주도로 이끌어진다는 비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유연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화행정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혹은 경직되게) 조직을 편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조직의 행정과는 애초부터 그 운영원리와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정부가 문화행정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일임하는 제도가 일찍부터 발전하였는데 영국의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와 미국의 국립예술기금위원회(National Endowment of the Arts)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문화행정기구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입안과 집행에 참여하는 문화행정의 새로운 틀은 90년대 말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강원, 제주, 광주, 부산, 대구 등 광역단위 문화재단이 연이어 설립되었다. 부천, 고양, 성남, 전주, 김해, 의정부, 안양, 춘천, 서울 중구, 마포, 강남, 구로 등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 공연장이나 예술단체 운영에서도 독립적인 재단 설립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1988년 개관 당시부터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고 그 뒤 세종문화회관과 정동극장도 차례로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성남, 고양, 의정부, 김해, 창원 등의 복합문화공간들도 운영재단을 만들거나 기존의 지역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로는 기존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005년 재단법인으로 재탄생하였고 최근 국립극단도 재단을 출범시켰다. 공공예술단체들의 독립법인화도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09년 부산문화재단이 출범하였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 현황은 아직 전무하다.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하여 금정, 동래, 북구, 영도, 을숙도, 해운대 등 6곳의 구 단위 문화회관들도 시와 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일선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선의와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경직된 예산운영, 익숙해질 만하면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과 같은 관행 아래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의 경우 관료행정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정명훈 예술감독을 영입하고 몇 년 사이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의 경우에도 60년이 넘는 국립극장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성장한 것은 출범할 때부터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문화부나 서울시가 예술의전당과 서울시향에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의 성공은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모범적인 문화행정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몇 해 전부터 공연과장을 별도의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도로는 눈에 띄는 변화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단법인으로 독립하거나 부산문화재단으로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구 단위에서 문화재단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부천이나 고양, 성남의 성과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서울의 주변도시에 불과한 이들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공공문화시설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구 단위 문화행정의 변화는 주민들이 그 성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제한된 예산에 구 단위의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단체들을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구 단위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살려 지역의 기초문화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특성 없이 전시성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축제도 문화재단을 통해 혁신하고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부산문화재단에서 부산문화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 물결, 상상력이 넘치는 해양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개방과 교류, 생명의 가치를 담은 ‘해양’, 다양한 실험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미래’, 재생과 창조의 문화생태계를 추구하는 ‘순환’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제시하였다. 출범 2기를 맞은 부산문화재단의 포부와 역할에 대해 기대를 가지게 하는 모습이다. 90년대까지 장르에 넘나들며 우리나라 청년문화의 젖줄이었던 부산문화의 면모를 다시 확인하는 젊고 새로운 움직임들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부산문화의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부산 문화예술의 새 물결을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단단한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

- 사회자

배재정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 좌담자

김대홍 "오픈스페이스 베" 프로그램 디렉터
- 박영미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 이동휘

새누리당 부산시당 문화미래특위 위원장
- 정희준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 교수 (가나다순)

기획좌담

정치와 부산문화

| 일시 | 2012년 3월 7일 오후 4시 | 장소 | 부산문화재단 3층 회의실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자리는 부산문화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감 그리고’ 커버스토리 ‘정치와 부산문화’와 관련한 좌담입니다. 오늘 좌담을 위해 특별히 정당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문화미래특위 이동휘 위원장님,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정책위 박영미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측의 경우 여러차례 요청을 드렸으나 좌담 참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아쉽게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4월 총선인데요, 정치와 일상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듯, 정치와 지역의 문화예술 또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 참석자분들께서는 정치와 부산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김대홍 저는 우선, 커버스토리 원고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원고에 ‘부산의 문화정책이 하드웨어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각예술, 설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시립미술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디자인과 구조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 건립되다 보니, 100년 전 인상파 그림을 전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현대미술이나 설치미술 작품을 전시하기 힘듭니다. 사전에 선호조사라든지, 연구, 리서치 등 준비작업이 정말 빈약합니다.

정희준 맞습니다. 부산의 주요 문화예술 정책을 보면 하드웨어 중심이고, 건물부터 지어 놓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어 놓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토론회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들을 솔하게 지적해왔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외국은 경우, 미술관이나 도서관을 지을 때, 간담회나 공청회를 100번이라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해줄만한 관련 전문가 몇 명을 찾아가 얘기를 듣고 정리하는 형식으로 결정이 이뤄집니다.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 좋은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공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영미 커버스토리 원고를 보면서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문제 점들에 대해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계속 누적되면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에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고에서는 ‘중앙(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격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배분 문제’ 등을 다루었는데요, 저는 ‘부산 내의 문화격차’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영상 관련 시설, 미디어센터 등 많은 것들이 해운대에 밀집돼 있습니다. 이른바 동서문화격차가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해보려다 결국에는 집고 서울로 떠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부산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등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방금 말씀해 주신 현안들은 그동안 ‘공감 그리고’가 계속해서 계속 짚어오던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좌담을 통해 여러 고민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버스토리 원고 중 최하림 논설위원의 글을 보면 기존의 사례들을 들어 정치의 역할, 특히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요구할 수 있을지, 혹은 요구해야 할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정



김대홍



정리 장지윤 기획홍보팀

이동휘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발전 2020 비전’ 정책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4년 안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행정에 대한 유혹이 큼니다. 하드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에만 치중하다보니,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어렵고 결국 젊은 예술인들이 부산을 떠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제고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문화정책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준 부산의 국회의원은 18명입니다. 제가 지켜본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본인들의 업적 과시나 생색용, 선거용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부산시 문화예술 예산을 사용할 때 터너옥 그러합니다.

문화예술이 지역에서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어떤 감수성을 키워줄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산 확보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건물만 짓는 형식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산시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돈은 쏟아져 들어오고 축제는 벌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고리들을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영미 예를 들어 국회의원실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하러 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을 쉽게 봅니다. 명분상으로는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지만 실제 내막은 본인의 이권과 연관이 되는 사업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 내는

그 역량이 정치기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준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사무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식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좌관을 잘 두어야 하고 본인도 판단을 잘해야 하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알고 잘 사귀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적절한 판단들 속에 한 두 개 실수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결정들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동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자들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기기는 어렵고 정당이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미 ‘좋은 시민이 좋은 정치기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누렸으면 좋겠어...”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누려야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 시민들이라면 오페라하우스나 영화의 전당을 지을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누리는 문화예술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이 같은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에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안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기는 겁니다.

28

기쿠루 정당의 입장에서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예술인 개인이나 단체로서 생각하는 비전을 정치나 정당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정당에 참여하거나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정치인으로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 사고가 자유롭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시대를 열어가집니다. 예술인과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시대를 열어가고,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히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저는 당 차원의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정치로 많이 가다보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동네에 건물이 하나 세워지면, 그걸 보고 많이 속았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길 바라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지난 1992년도의 대선공약을 보았는데 재미있는 공약을 발견했습니다. ‘금세기 내에 남북통일 완료’라는 황당한 공약이었습니다. 당시의 금세기 내는 2000년이지요. 그때의 시민, 국민들은 한정된 신문이나 방송 등 한 방향의 소통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생겨나고 옹고 그름을 골라낼 수 있는 많은 채널들이 생겼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얘기들을 나눌 채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바른 방향에 헌발 더 다가가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미



정희준



이동휘

29

만든 후에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까의 고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참고로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맡썬하였는데요,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부산의 문화예술 관련 기업 스폰서십은 기존의 축제들이 다 휩쓸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에는 흔히 얘기하는 재별기업도 없습니다. 세누리당에 기존의 정책이 아닌, 새로운 정책이 준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휘 사실상 세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들이 부산시의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근간의 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업후원자금은 단순한 스폰서십이 아니라 기금조성 즉 펀드에 대한 논의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희준 이제까지 부산시의 정책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술가들, 문화 담당 기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부산시의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문화예술 정책 9개가 그대로 당의 정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미래특별위원회’인데, 정책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과거의 답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휘 옛 한나라당의 정책운영 시스템은 중앙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정책을 짜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중앙에서 볼 때는 지역이주의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아시아 영화영상 중심도시 자원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는 것도 이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이번 총선에서

센드위치를 팔다가 자신의 예술활동을 하는 식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도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잘리게 됩니다. 예술인복지법의 경우 독일 등 외국에서는 상세한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해 서울로 옮겨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반잡한 게 싫어서 결국 남았습니다. 서울은 작가층이 풍부하지만 부산의 경우,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학생 층이 갈수록 얇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기존의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온천천의 그래피티도 행정적 판단에 의해 쉽사리 지워지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예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부산에서 작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자 말씀을 듣다보니 궁금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열리는 게 토론회나 포럼, 공청회 등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지역 문화예술계의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들을 수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 분야에서는 왜 그런 기회가 거의 없을까요. 정치 분야에서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관성이 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미 저희 당의 경우 문화예술 쪽에 일하는 분들과 결합이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운동 플뿌리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의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연결할 분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폭넓게 못해왔지요.

부산의 문화예술에 보탬이 되는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미 저희는 부산지역 창작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책임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초중고에 세 명 이상의 실기 정규직 교사를 채용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창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편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급여를 받고 소설을 씁니다. 그런 안정적인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도 틀림 같은 작가와 작품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캐나다에 체류한 적이 있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주민들의 4분의 1 정도가 자칭 예술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보니 길거리에서 며칠



정희준 이해는 하지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통합진보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누리당의 경우도, 현실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고 막상 얘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으니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휘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세누리당의 경우, 부산시의 정책에 의존한 부분이 큼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술인복지법이나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 교사 채용 등 정책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고려해본다면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준 정규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작을 하면 상당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예술강사 사업도 그렇고 방과후 수업도 그렇습니다. 의제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절반이라도 갈 것입니다.

박영미 무상급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에서 처음 발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경우, 공공으로 해결한다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정당쪽에서도 문화예술계의 흐름에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술교육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방과후 교육의 경우 교과부에서 담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정당에서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인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이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영미 통합적인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교육, 지역사회 등을 통합적으로 보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동휘 저희는 '아시아영화영상심도시 특별법'의 새로운 해석, 즉 새로운 시대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영화 영상을 넘어 범 문화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준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화영상에 대한 투자가 부산 문화관은 물론 부산의 영화계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산이 로케이션 장소로만 쓰인다는 것이지요. 문화영상도시 특별법이 입안된다면 지역의 문화예술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휘 또 한편 부산의 축제를 '인터내셔널 빅 5'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에 비금강 만한 대표적 축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축제를 과감히 줄이고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제 처럼 지역예술가들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글로벌 페스티벌을 키워나가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 아마도 그렇게 하시려면 기존의 축제에 대한

지역분권을 살리면서 이제까지 누적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특별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희준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서로를 참고하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산은 영화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문학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공간과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부산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교육도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장소를 복지관,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확산해 아파트 단지 등으로도 넓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좌담이 시작할 때는 국회의원의 역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당의 열린 시각과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홍 이런 시간이 정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대만의 모 작가와 통화를 하니, 대선에 앞서 대선후보 두 명과 만나 의견을 피력하고 문화예술인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얘길 하더군요. 우리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많은 정보를 교류한다면 이를 추리고 비판하면서 더 좋은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미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에도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동휘 진부한 정책 마련 과정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가의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도 비 전공자들도 창작의 열의가 있다면 예술가로서의 그에 부합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평가에 기초해 축제들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희준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그런 역할을 부산문화재단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함께 공감대를 가지면서 교집합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커버스토리에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만, 중앙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지역문화분권, 지역문화균형발전 등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각 당의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이동휘 전체 예산 안에서 콘텐츠 위주의 예산 배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이를 키우되 예산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박영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특별법을 애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문화격차가 심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하면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지역에 배분해야 합니다. 문화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간 배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있는 문화의 정무적 기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준 선진국일수록 공청회를 많이 합니다. 부산은 그런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부산에 적합한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토대가 되는 자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당 내부의 사정으로 좌담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문화정책

배경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 및 복지 제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은 물론, 더 나아가 도시 재창조의 수단으로서의 복합적 가치를 지님

문화산업 매출액 규모 45조원에서 수도권이 86.9%, 부산은 2.4%임.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원, 도서관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

부산국제영화제 등 행사와 영화 전용관 등 시설 구축에 힘쓰고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행사 및 시설 외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부족함

지역 내의 콘텐츠 제작 및 산업적 실체성이 부족함.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으로 떠나 감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낙후 되어 있고, 부산만의 차별적 강점이 부족하며, 산업적 차원에서 실체성이 부족함

공약목표 및 내용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련 기본 인프라 제고

우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부산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적 실체성 제고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및 제작활동 지원

1.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활용도 제고

2. 소규모 영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직접적 지원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원

1. 부산오페라하우스, 제2시립미술관, 영화체험 박물관, 영화촬영스튜디오, 문학관, 공연시설 등

2. 구별 문화회관 확충 및 활성화, 소외계층(노인 등) 대상 문화인프라 확충 등

3. 근대문화자산 복원 및 개발(초량왜관 전시관, 영도대교 전시관, 임시수도 기념관 등)

첨단영상, 게임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중점 육성

1. 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 3D영상 산업화, 영상 관련 기업 육성

2.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부산콘텐츠진흥원 설립

창조도시 및 창작촌 개발 및 활성화

1. 지역별로 낙후된 시설을 창조자원으로 개발하여 창조도시 거점으로 조성(권역별 시범 지역 선정 총 5개 실시)

2. 전국의 창의적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 마을의 조성 및 적극적 지원(동부산 개발단지 또는 센텀시티 인근)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

1. 경성대/부경대 일대, 광안리, 해운대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

2. 젊은층이 자신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공연할 수 있는 자리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문화소통위원회 구성

1. 부산시당 문화미래특별위원회에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인들의 고충과 새로운 아이템 등을 상시 교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젊은세대들의 문화생각들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의 창구 마련

문화정책



걸어서 5분, 우리 마을 도서관 만들기

-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동마다 1개소 배치목표) : 4년 목표
- 사서와 행정직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운영비 지원
- 마을에 있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빈집 빈건물의 리모델링
 - 1) 사립공공도서관 : 80평 규모(인구 2만 명 이상, 사서 4, 행정1) 60개
 - 2) 마을 도서관: 40평 규모(인구 2만 명 미만, 사서 2) 155개

학교에서 책임지는 문화예술교육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문화예술 실기교사 3명씩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 (음악, 미술, 국악, 연극, 무용,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을 교육
- 정규직 문화예술교사로 채용하고 4대 보험 포함 월 200만 원, 1년 2,400만 원
 - 1) 민족 예술 교육 우선 : 농악, 민요, 탈춤, 판소리 등
 - 2) 지역 예술인,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 활동가 등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

-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 1) 문화예술 활동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커뮤니티 아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 아트”라는 대중의 예술 참여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 2) 생활체육동호회는 지역마다 잘 조직되어 있으며 주민들 자발적 참여로 지역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 것처럼 문화예술 동호회 또한 공동체 정신을 복돋우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동호회(문학, 연극, 풍물, 노래, 사진 등)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지원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
- **쌔치 문화예술 공간 확대**
 - 1) 주민센터, 복지관, 마을도서관 등 유휴시간의 공간활용
 - 2)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습실과 연습공간
 - 3) 청소년 수련원, 학교 강당 등의 재활용
 - 4) 시군구 단위에서 문화활동을 보일 수 있도록 작은 소극장, 갤러리
 - 5) 빈집, 빈건물의 리모델링 통한 주민문화예술 공간 확보
 - 6) 16개구의 10억짜리 빈건물 사서 리모델링 1억. 총 176억/ 건물유지 연 16억
 - 7) 돈은 1/10 들지만 주민들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은 100배, 삶의 질 향상도 100배

공공문화예술의 주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지원
앞서 기술된 공공문화예술정책 모든 부분에 일자리창출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한 예술인복지지원
 - 1)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별도의 직업을 구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여 창작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조건 구축을 위해 문화예산의 1%를 매년 문화예술인복지에 투입
 - 2) 그 밖에도 문화예술 산별노조 구성, 문화예술인복지기금 설치
 - 3) 계약직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마련
- 예술가 스튜디오 확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급 지역에 ‘포따또가’ 등과 같은 예술가 창작공간 확대

하마탱의 만화로 쓰는 詩

최인수 쓰고 그림



해바라기야, 눈 깔아라

꿈도 사랑도 지칠 때가 있거늘
해가 야속하다 원망 마라.
해는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다.
잠시 쉬어도 괜찮으니,
해바라기야, 눈 깔아라...



©하마탱 hamatoon.com

최인수 만화가 hamatoon.com

부산만화가연대 간사, 전국시사만화협회 간사, 순천대 출강.

〈반려마초〉, 〈아머리카노〉, 〈청춘은 아름다워?〉

2009 SICAF 최우수상, 인기상

저서: 〈하마탱의 일편단심 하여가1〉, 〈사람 사는 이야기〉

Criticism & Review

Hot Review

‘쇼’가 아닌!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싹틔줄 인문학, 골목을 향한 지극한 살림의 의지

Close Criticism

장르별 비평

미술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

생활문화 건물을 통해 문화복지를 사유하다

문학 · 출판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비평들

영화 영화 속에 재현된 부산의 이미지

연극 M.I.Z.I Theater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춤 허경미 무용단 Red Step의 〈外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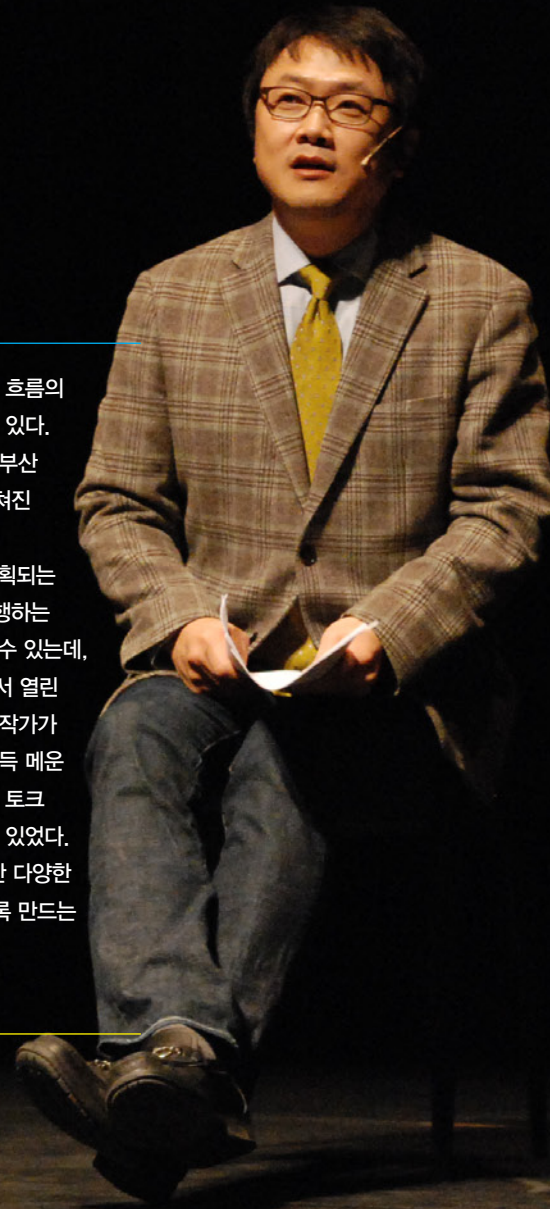
'쇼'가 아닌!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른바 '토크 콘서트'가 대세다. 물론 오래 전부터 코미디언들의 '스탠딩 토크쇼'를 비롯해 비슷한 형식의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상을 담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현상으로서 주목할 만한 이 토크 콘서트의 유행은 우리에게 생각해볼 거리를 아주 많이 던져주고 있다.

흔히 '소셜테이너'라 불리는 김제동과 같은 연예인이 이미 지난 2009년, '노브레이크'란 이름으로 전국의 소극장을 돌며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콘서트는 연일 전석 매진을 기록했는데, 이후 주로 2030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토크 콘서트들이 봇물 터지듯 기획됐고 거의 매번 전석 매진이란 기록을 세우며 우리 시대 청춘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치적, 사회경제적 맥락이 큰 요인이자 짐작되는 이런 콘서트들과 별개로 'TED'나 자유롭게 그 라이선스를 신청해 지역에서

기획되는 'TEDx'같은 행사는 이런 흐름의 최전선에 있는 선도적 형식이랄 수 있다. 또 작년 세계인문학포럼을 맞아 부산 지역의 다양한 인문학공간에서 펼쳐진 행사들도 같은 자장 안에서 기획된 것들이다.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되는 토크콘서트로는 정희준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토크 정희준의 어퍼컷'을 들 수 있는데, 지난 2월 28일 부산MBC아트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조국 교수와 공지영 작가가 출연한 가운데 그야말로 전석을 가득 메운 다양한 세대의 관심과 열기에 최근 토크 콘서트의 인기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2030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들을 토크 콘서트에 열광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것이다.



나눈다!

장현정 hjmiro@naver.com

부산출신 인디1세대 록밴드 'Ann'의 보컬이고, 부산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부산노리단&달록 공동대표,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 편집장, 1인 출판사 호밀밭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며 <소년의 철학(2010 학교도서관저널 인문사회분야 추천도서)> 등 몇 권의 책을 썼고 대학과 여러 기관에서 문화사회학 관련 강의를 한다.

사진제공 정희준, (주)인사이드엔터테인먼트



01
'쇼'가 아니다.

무엇보다, '쇼'가 아니라는 것! 나는 이것이 핵심이라 본다. 무대와 관객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사례를 들추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주변의 공연이나 행사들은 너무나 기계적으로 무대와 관객을 분리하고 나아가 과잉된 연출과 장치 및 포장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대와 관객 사이의 교감을 증발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는 토크콘서트에는 이런 게 없다. 따로 연출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굳이 연출이라 한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출연자와 관객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판을 만드는 것 정도랄까. 즉 '포장하고 꾸미는 방식의 보여줌'에서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의 보여줌'으로 자연스레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보여줌의 방식에 더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 모습이나 느낌, 혹은 단상을 가볍고 자연스레 보여주고 또 보는 최근의 SNS 열풍도 이런 흐름과 동떨어져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정치나 예술, 종교나 과학처럼 근대 이후 점점 더 권력화되어가며 우리의 구체적 일상생활과 유리되었던 그 모든 것 위에 다시 우리의 일상생활과 보통의 삶이 부상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포장과 연출을 벗겨내고, 현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보고 듣고 싶어 하는 중이라고 감히 해석해본다. 돌이켜보면 토크 콘서트의 형식을 띤 이런 행사들도, 처음에는 대개 연예인들이 중심이었거나 조금 영역을 확장하더라도 대개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중심이었다. 즉, 독자와의 대화를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거나 다른 방식으로 연출하고, 혹은 인문학강연을 미술이나 건축 등과 얹어 관객들과 만나는 방식으로서 주로 작가나 미술평론가, 혹은 인문학자들이 관객들과 만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차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인문학이나 장르예술은 물론 공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은 흔히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생각하던 분야는 기업경영자, 고위 관료, 종교인 등을 막론하며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을 딱딱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 자신의 삶의 이야기, 일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점 등 전혀 권위적이거나 어렵지 않은 느낌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두 번이나 앞 둔 올해 들어서는 정치적 색깔이 짙은 토크 콘서트가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제 이 흐름은 지난 몇 년 간 우리 사회의 전례 없는 변화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02
다시 '이야기'의 시대,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으로!

어째서 '쇼'가 아닌가? 우선 콘텐츠가 이야기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막간을 이용해 가벼운 공연 등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토크콘서트의 중심에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문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미디어조차 통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미디어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미디어(매개체)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소통방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의미심장하다. 아주 옛날, 글자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있고 배우더라도 책 한 권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 대개의 민중들은 '이야기'를 통해 문화를 전승받았고 지혜를 터득했다. 이때 이야기에는 근대적 의미의 연출이란 게 없었고, 말 그대로 화자와 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했다. 서로의 표정이나 주변 날씨, 그 밖의 여러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맥락들 속에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어조와 억양을 달리 하고 내용과 마무리가 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겐 거창하게 '멘토'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할머니'가 필요했을 때를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왜냐하면 옛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경험에 녹여내 도란도란 들려주셨던 할머니들은 정말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질문과 대답이 가능한 상황에서 표정을 보고,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며, 계절과 주변 환경 속에서 적절한 음조와 억양과 길이로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금 유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출연하는 이른바 '멘토'들의 이야기 방식이 다름 아닌, 바로 그 할머니들의 방식이다. 우리는 토크콘서트의 출연자들에게 강단의 교수나 흔히 얘기하는 '윗사람'에게 느끼는 무의식적 위압감이나 권위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내 맘을 알아줄 것 같다는 정서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반응하며 동시에 바로 눈앞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치부와 실수와 상처들을 고집내내는 그들에게서 위로와 안도와 설명하기 힘든 용기를 얻는다. 나아가 그들은 자기만 떠드는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관객석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얘기에 귀 기울인다. 간단한 필터링은 거치겠지만, 그래도 늘 질문이 새로울 테니 무대와 멘토들에게 꼭 짜인 연출 자체는 상당 부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토크 콘서트의 백미가 드러난다. 인문학 강연이든, 정치적 성격의 토크 콘서트든, 솔직하고 가감 없는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진행사진

관객의 질문에 무대 위 멘토들은 곤란해 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바로 그 순간 무대와 관객이 하나 되어 고민하고 두근두근 소통을 기다리는, 약간 과장해 표현하면 종교적 체험까지 가능하게 한다. 질문들은 대개 거침없다. 그들의 삶이 절박할수록 그렇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적 서사는 록 공연장 못지않게 공간의 공기를 뜨겁고 열정적으로 데운다. 우리들 각자의 전문영역을 가르는 경계는 사라지고, 서로의 삶과 서로의 고민이 얹히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 튀어나온다. 약 2시간 정도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튀어나온 바로 그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기쁘게 자리를 떠나게 하고 이후에도 한동안 각자의 입장에서 건강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03
정보사회의 나눔

'정보사회'라 말할 만큼 미디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받고 갖가지 미디어들로 무장한 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려 한다는 건 재밌는 현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화는 한편, 주류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문화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에 이제 완전히 물려버린 건지도 모른다. 포털사이트 검색창만 두드려도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느덧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 그 정보들의 맥을 짚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부와 영혼으로 느끼게 됐는지도 모른다.

삶이 각박해질수록, 첨단기의 극을 달리는 21세기가 될수록, 희한하게도 우리는 다시 '쇼'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이야기'에 목말라하고 있다. 할머니들처럼 다시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편안한 표정과 목소리로, 가보지 못한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도란도란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솔직한 톤과 표정으로 얘기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그 표정과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울컥하고 주먹을 쥐게 되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경험을 원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야기란,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경험되는 법. 이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 그것도 객관화된, 표준화된, 규격화된 형식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개별적으로 달라 하나하나가 그대로 저마다의 세계인 다른 형식들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이런 토크 콘서트들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대개 무료라는 점이다. 주최 측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다른 후원 등으로 해결하고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무료로 입장한다. 이른바 재능기부의 방식인데, 이들은 무엇을 나누는가?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혹은 재능을, 무엇보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또 그 어느 시대보다 어깨가 무겁고 살기가 팍팍하다는 요즘의 청춘들도 물질적 나눔보다는 이런 종류의 비물질적 나눔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열광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다. 여전히 물질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인문학이나 시사를 비롯한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토크 콘서트를 보노라면 막연하게나마 인간은 밥만으론 살 수 없었던 옛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따지고 보면 매일 저녁 벌어지는 그 술한 우리들의 술자리도 한 바탕 토크 콘서트에 다름 아니다. 정보사회에, 비물질적 나눔의 형태로,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 펄떡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도 이쯤하고 친구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러 단골 술집으로 향해야겠다. —

실핏줄
인문학, —

골목을 향한

지극한
살림의 의지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 행사 사진

The 1st World
Humanities Forum

권유리아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문화평론가
버려진 것에 관심이 많다. 길고양이 러버, 달타냥, 와르를
거두어 키우고, 신지 않은 장화에 벤자민을 키운다.
큰 교회보다는 집에서 하는 작은 예배를 더 좋아한다.
삶의 작은 것들에 자주 감동한다.

사진제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시사토크 정희준의 어퍼컷' 청춘로맨스 진행사진



Parallel Session

지난 2011년 11월 24~26일 부산의 인문학계가 한껏 들떠 있었다. 유네스코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때문이다. 포럼의 규모가 세계적이라는 점, 현대사회가 처한 곤경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인문학포럼이라는 점이 제1회라는 상징성과 함께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사실 지난 포럼은 세계적 쉼임이 재앙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해법으로 인문학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을 알린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마침 생활인문학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인문학이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삶의 미세한 국면까지 끌어안는 절실한 섬김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에 대한 애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런 점에서 부산의 인문학은 매우 젊다. 소수의 지식엘리트가 주도하는 낡은 방식의 담론 지향보다는 구체적인 삶과 소통하려는 치열성은 주체 계층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골목인문학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와 존재 방식은 각각 다르지만 카페 헤세티, 생활기획공간 통, 카페 빈빈, 재미난 복수, 아트 팩토리 인 다대포, 원도심

창작 공간 또따또가, 오픈 스페이스 배, 백년어서원, 인디고서원 등은 부산이라는 삶의 터를 성실히 섬기고 있는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점에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포럼의 부산 개최는 부산인문학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음이 분명하다.

—— 하지만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포럼은 부산인문학의 새로운 길찾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던져주었다. 우선 발제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소속된 이론전공자라는 점은 포럼의 지나친 이론편향성을 보여준다. 세계적 쉼임의 시대, 지구윤리는 구체적인 현장의 실천 과정에서 모색될 때 비로소 현실적합성을 갖는다. 하지만 생활문화기획가 혹은 지역문화 실천가들의 목소리가 빠진 포럼은 인문학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고민보다는 일방적 강연일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 삶에 밀착된 발제는 부산광역시의 지역을 다룬 3~4개 정도에 불과했다.

—— 이는 포럼의 성공이 발제자의 사회적 지명도에 달려있다고 믿는 관주도의 전시성 행정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인문학포럼이 사회과학적 마인드로 기획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사회과학적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개회식

인문학의 핵심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아니다.
현장에 스며들 수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지극한 섬김이다.

증명 가능한 가시적 성과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혹은 세계적 석학이라는 객관적 인지도, 여기에 기댄 동원된 청중의 숫자로 대회의 성공을 평가하는 방식은 포럼이 대단히 비인문학적 발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포럼의 홍보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르 클레지오나 달마이어 교수의 세계적 명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 인문학의 핵심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아니다. 현장에 스며들 수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지극한 섬김이다. 세계적 쉼임의 시대에 확인된 명성에만 쏠려있는 가치 체계를 부단히 뒤돌고 뒤집어 놓기 위해서 포럼은 동네골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한 배경은 바로 이런 소수문화 외면에 대한 유럽의 자기반성이 아니었던가. 구호가 아닌 실천, 유명인이 아닌 주변인, 논리가 아닌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인문학은 출발한다. 거물급의 출연이 불편했던 이유는 이들의 논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들이 우리 지역의 고민에 전혀 무지하기 때문이다. 르 클레지오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청중은 세계적 강연 상품에 열광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한다. 행사 체험을 증명하기 위한 사인과 인증샷에 목을 매는 걸치레적 사고에서 세계 석학은 단지 유명출연자일 뿐이다. 이러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역 발제자의 강의에는 청중이 될 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높아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번 행사를 통해 돌풍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애초부터 지켜지지 힘들었다.

—— 인문학포럼이 전시성 행사로 인식되면 대단히 위험하다. 행사의 공식적 진행만을 염두에 둔 시간 배치, 20분이라는 그야말로 찰나적 시간에서 강연자들과 토론자들은 끊임없이 재촉을 받아야 했으며, 북적거리는 발표장에서 발제자의 글을 진지하게 듣고 사유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시간적 여유의 문제는 원고 청탁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포럼이라면 적어도 1년 전에 원고청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불과 3~4개월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어떤 필자는 발표 자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급하게 청탁이 들어가니 원고가 급조되기도 한다. 시간에 쫓겨 기존의 논문을 재가공하다 보니,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진정성 있는 인문학 성찰의 시간이라기보다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한 전시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고독한 인간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것은 사회복지도
연금도 아닌, 바로 인문학이다. 그래서 인문학은 구체적인
생활에 밀착된 로컬인문학일 수밖에 없다. 세계인문학포럼에서
인문학이 가야할 방향은 바로 이 로컬인문학, 동네인문학,
싹싹줄 인문학이다.



기조강연

수 없다. 무차별적으로 내려진 동원령으로 포럼은 그야말로 대중행사장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북적거림 속에서 시민과 함께 삶의 문제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마련되지 않았다. 오직 공식적 스케줄만 충실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되는 폐쇄적인 담론 강의의 시간이 이어졌다. 인문학에서는 모든 문제를 구체적 현실로 가져와 고민하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다문화문제가 유럽처럼 다시 실패와 좌절의 사례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전반을 통찰하려는 진정성 있는 토론이 반드시 필요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한 시민의 비아냥 그대로 인문학포럼은 지나치게 비인문학적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포럼에서 일반 대중이 대거 몰린 데에는 인문학의 성취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생활인문학운동조차도 실천보다는 강의 위주로 편중되고

있는 부산의 인문학,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인문학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최근 이른바 강연산업이라 불리는 인맥을 활용한 신종 마케팅이 한국의 인문학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 정계, 경제계, 연예계, 학계 등 한국사회의 유명인을 내세워 청중을 쉽게 동원하는 강연산업은 이제 새로운 마케팅트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강연인문학은 청중을 방관자로 만든다. 사회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결코 그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교양 있는 방관자만을 양산할 뿐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유행처럼 불어닥친 인문학토크쇼, 강연회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냉소와 유머로 적당히 버무려진 토크상품을 청중과 공동제작하며 시대적 책임을 회피한다.

따라서 이번 포럼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인문학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인문학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인문학이어서 매우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인문학까지 잡아먹는 시장전체주의의 가공할 위력을 실감시킨 무서운 시간이기도 했다. 포럼을 통해 볼 때, 이제는 인문학도 학력이든 유명세든 브랜드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지역에서도 브랜드가 없으면 인문학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독서량이 밀바다 수준인 한국사회에서 인문학 열풍은 유명인에 대한 열광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하게 하는 고상한 감정마케팅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인문학열풍의 핵심은 강연자가 얼마나 유명한가이다. 이력이 화려할수록, 떠들썩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을수록 강연은 성황을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골목인문학은 화제성과 유명세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부산이 인문학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인문학 관련 단체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지영, 진중권, 김제동, 조국, 최재천의 강연은 성황을 이루지만, 목욕탕 주인이 건물을 팔면서 대안전시공간 반디는 문을 닫았다. 카페 헤세이티도 적자로 인해 운영진이 교체되기까지 했다.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명 인문학카페도 강의는 북적거리지만 강사로 부담에 심한 압박을 느껴 얼마나 버틸지 모르는 일이다. 세계인문학포럼의 부산 개최가 하나의 성취처럼 보이지만, 언론보도와 실제 현실이 그만큼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세계인문학포럼은 오히려 지역인문학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시켜주는 서글픈 지성의 2박 3일이었다. 이번 포럼의 이면에는 거창한 행사만을 지향하고 인간 삶 구석구석의 싹싹줄인문학을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거대자본이 운영하는 교보문고 영풍문고가 부산시민의 약속 장소이었던 문우당과 동보서적의 폐업을 종용했다. 결국 포럼이 당신들의 축제이었던 것은 부산에 인문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브랜드가 없어서’다. 브랜드 없는 골목인문학은 언제든 소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세계인문학포럼을 통해 확인한 지역인문학계의 고질병이다.

따라서 포럼의 향후는 시장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 삶에 밀착된 골목인문학을 실질적으로 고무시키는 섬세한 살림의 의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포럼의 포맷 자체를 시민축제의 방식으로 다시 기획할 필요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시민참여축제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해운대의 일정 지역에 교통을 통제하여 영화제 기간에는 시민들이 감독 배우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영화제를 즐기는 맥주파티는 영화제가 얼마나 시민을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포럼의 각 섹션은 강연자와 시민이 격의 없는 소통의 장, 그리고 단체와 단체 간의 네트워킹 기회도 고민해야 한다. 세계인문학포럼이 내세우고 있는 목적, 즉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인문학적 대응, 그리고 인문학자 및 관련 활동가 네트워킹 및 국제적 커뮤니티 구성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만을 추구하는 관주도의 방식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더 폭넓게 지역현장기획가, 지역대학의 인문학연구소, 지역인문학단체가 포럼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인문학의 지속가능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로컬 푸드가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은 푸드 마일리지가 짧기 때문이다. 인문학에도 마일리지가 있다. 지금 우리는 평균수명 100세를 코앞에 두고 있다. 고독이 일상이 되어버린 고령화시대에 이제 인문학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은 평생인문학이다. 고독한 인간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것은 사회복지도 연금도 아닌, 바로 인문학이다. 그래서 인문학은 구체적인 생활에 밀착된 로컬인문학일 수밖에 없다. 세계인문학포럼에서 확인된 인문학이 가야할 방향은 바로 이 로컬인문학, 동네인문학, 싹싹줄인문학이다. —

김혜지 作
'소녀배우기'

김혜지의 <소녀배우기>에서는 다섯 명의 여성 작가가 소녀시대의 <Chocolate love>에 맞춰서 소녀시대의 안무를 따라하는 모습을 담았다. 소녀 시대 '따라잡기'에 나선 왕년의 소녀들의 어설픔고 딱딱한 몸놀림과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이 웃음을 자아내지만 마냥 우습지만은 않다. 연신 방긔방긔 해사한 미소와 애교를 발산하는 걸 그룹의 표정과 동작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예전에도 하늘하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이지연과 강수지, 하수빈 등 '소녀가수'들은 존재했으나, 지금처럼 '소녀전성시대'인 적은 없었다. '청순하기만 했던' 과거의 소녀들과 달리 심지어 '섹시하기까지 한' 이 소녀들의 등장은 자못 위협적이다. 소녀들의 등장으로 날씬하지도, 청순하지도, 섹시하지도 않은 평범한 '언니들'의 삶은 더 피곤하고 팍팍해졌고, 소녀들만큼 어여쁘지 않은 대부분의 다른 소녀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꽃미남들의 등장으로 소년들과 아저씨들의 삶 역시 팍팍해지고 있다.)

박제성 作
'공'팀 스크래치 作
'누가 누가 잘하나'

박제성의 <공>과 팀 스크래치의 <누가 누가 잘하나>는 맹목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를 비판한다. <공>은 전력을 다해 축구장을 누비는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찍은 영상에서 공을 지운 작품이다. 무엇을 쫓아 뛰는지 알 수 없는 축구 선수들의 모습은 전력질주에 빠진 현대인을 그린 소름끼치는 자화상이다. <누가 누가 잘하나>에서는 과장된 권위를 만들어내는 높은 무대에 전형적인 관공서 스타일로 제작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네오리버럴리즘을 위한 자기주도 3대 비전'이라는 현수막이 중앙에 걸려 있다. 무대 양옆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시장경제의 창달',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볼드한 서체에 굵은 테두리로 장식된 서체로 쓴 글씨들은 모두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되며, 공간 전체에는 새마을 운동 시대의 국민 노래 '잘 살아 보세'가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온통 잔뜩 어깨에 힘을 준 오브제들로 구성된 공간은, 권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공허하고 우스꽝스럽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비디오와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리슨 투 더 시티>의 작품과 김진숙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크레인 시위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라디오 방송을 운영 중인 <육인 컬렉티브>의 작품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외에도 현대인의 시간 사용을 24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구민자의 <24시간>, 오재우의 <물로 쓴 슬로건>, 파트타임스위트의 <행진댄스> 등 다양한 설치와 영상 작품은 풍성한 볼 거리와 함께 생각할 문제를 짚어주었다. 점점 사회적 문제와는 거리를 둔 채, 오락화 되어가는 미술 전시 관행 속에서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은 오랜만에 삶에서 출발하고,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작품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전시된 작품들 대부분이 지난 해 여러 전시 공간에서 따로 전시된 작품들이었으나, 하나의 주제로 묶여서 더 당차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여전히 안녕 없는 생활들 중에 있으나 전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모두의 문제라면, 푸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으니 같이 해법을 찾아보자고. —

■ 생활문화

건물을
통해문화
복지를

사유하다

박진명

통통 튀는 커뮤니티공간 "생활기획공간 통"의 공동 운영자. 공복방지위원회로 과일 팔던 행복과일청년. 지금은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간간히 시를 쓴다.

사진제공

박진명, 류성호



'장전동의 '아지트'



'생각다방, 산책극장'



'생활기획공간 통'

건축이라 하기엔 뭔가 거창하거나 무작스러워 보이고 인테리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워보인다. 하나의 공간이 탄생하는 과정에 그것을 탄생시킨 사람들의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면 과장인가. 장전동의 아지트에는 녹음스튜디오, 합주실, 작업실, 전시실, 사무실, 숙소, 마당 등의 공간이 있다. 어린이용 풀장이 딸린 이 큰 이층 건물을 왜 빌려야 했을까. 그것도 부산대 인근에, 대학이나, 젊은이들 속에서 다양한 개성이 싹터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인디문화를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었기 때문일 것이다. 파티도 하고, 예술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아지트를 꿈꾸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다방 산책극장. 못골 뒤 골목에 있는 이 곳은 정면에서는 1층이고 뒷면에서는 2층인 독특한 주택을 손봐서 만든 공간이다.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있지만, 비까번쩍한 물건들은 없는 이 곳은 카페이기도 하고, 음악·영상 등 다양한 이야기가 결합되는 놀이터이기도 하다. 월세

10만원의 공간은 털 쓰고,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살겠다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난다. 기존 건물의 틀이나 배치를 그대로 활용한 공간 내부나 안내판, 테라스 등에 느리게 살기로 한 사람들의 미학이 스며있다. 그 공간의 주인장들은 열고 싶으면 열고, 떠나고 싶으면 여행을 떠난다.

생활기획공간 통은 장전동 지하철역 앞 건물 1층에 자리를 잡았다. 통유리에 내부도 사무실, 부엌, 커뮤니티 공간 정도로 기능은 나누어져 있지만 문이 없기 때문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나름대로 역세권의 1층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주민들과 교류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된 부엌은 음식을(술 포함) 나누는 것과 같은 일상의 나눔에서 즐거움을 찾겠다는 것이고, 칸막이 없는 넓은 홀은 그런 즐거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의 기억이 되는데 이 장소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연령도, 분야도 다양하게 그 공간에 주워 담는다.

개인들의 관심사와 철학이 만나 집단이 되면서 공간들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직접 공간을 임대하고 꾸미고 홍보하고 채워가면서 각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큰 소굴 같은 아지트, 주인장이 비운다 해서 이상할 것 없는 생각다방 산책극장, 시선이나 소리의 사각지대가 별로 없는 생활기획공간 통의 구조가 기형적이거나 군더더기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지향 안에서는 이런 기형적이고 군더더기처럼 보이는 구조가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된다. 건물은 콘텐츠를 담은 그릇이며 콘텐츠와 함께 콘텐츠가 된다.

문화에서는 적자가 아니라 복지

최근 작게는 은행에서 문화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크게는 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형 문화시설을 짓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미 1,600억을 들여 지어진 영화의 전당 1년 운영비 지원이 70억원 규모라고 한다. 개관 전 이미 연간 40억 가량의 적자를 예상했던 영화의 전당에 대해 김승업 대표는 “문화공간에 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화는 사회복지개념으로 봐야한다”라는 명답을 내렸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방어적 언급이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화를 어떻게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복지업무를 주 사업으로 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 나아가 그러한 시도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도록 정책이나 행정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화에 있어서도 공존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라 적선이 되어버린다.

복지를 바라볼 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마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광의로 이해하면 보편적 복지는 지향이고 선별적 복지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협의로 보더라도 보편적인 접근과

선별적인 접근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방법상 차이가 있을 뿐 양자택일해야만 할 것이 아니다. 행정적인 단계에서 무엇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든 복지의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없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에서 대상의 선별은 주로 소외계층(저소득층, 노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내용적 선별은 의식주,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앞서 언급한 아지트, 생활기획공간 통, 생각다방 산책극장 등 청년들이 만든 자생적 문화공간뿐 아니라, 소극장, 인디밴드, DJ 등이 자신들의 철학을 담은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다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은 지원이 대부분이다. 문화행정을 복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 왜 영화라는 장르는 대형기금이 투입되는데 문화커뮤니티, DJ, 연극, 인디밴드, 팝핀, 지역출판, 다양한 예술 동호회, 웹툰 등 아직 생소한 장르뿐 아니라 문학, 미술, 판소리 등 기성의 예술 장르까지 포함한 장르에 대한 지원을 다 합쳐도 영화의 전당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영화가 소외계층인가, 자질구레한 장르들과 시도들이 소외계층인가.

철학없는 콘텐츠 오페라하우스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판지가 아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의 철학의 문제이다. 최근 또 북향재개발지구에 3,000억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이 본격화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것도 규모를 줄인 것이라고 한다. 부산을 상징하는 좋은 건축물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콘텐츠다. 영화도 아직 반신반의한데 1,800석 수준의 오페라전용관이라니, 부산에 오페라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오페라 티켓 한 장이 얼마이며 누가 그것을 보러 갈 것인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부터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콘텐츠와 함께 건축이 콘텐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자체를 콘텐츠로 삼으려 하고 있다.

1,600억 영화의 전당에 운영지원금이 70억인데 3,000억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지고 나면 그 운영을 위해 또 얼마의 세금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두 시설의 유지만을 위해 매년 200억 가량이 혈세가 들어갈 것이다. 장르를 뭉뚱그린 예술 창작, 교류에 대한 지원금이 고작 일 년에 40억도 되지 않는데 말이다. 오페라하우스를 채울 콘텐츠도 부산에 없고, 누가 소비자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오페라라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위한 전용관에 대한 대규모 물뿔을 시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양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과편중이며 지역 정서와 역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보려고 해도 기초적인 데이터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진행을 발표한 사업으로 믿기지 않는다.

백년 양보해서 어떻게 오페라하우스를 만들었다 치자. 그럼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다른 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것이라면 오페라하우스는 짓지 않는 것이 낫다. 비대칭적 문화지원도 이해가 안가는데 오페라하우스의 운영을 위해 다른 문화지원금의 예산을 줄이거나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문화행정은 다양성을 보존하고 새로운 창조의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업일 뿐이다. 그러나 사업을 선언한 사람들이 리스크가 예상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빚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질 것이다. 롯데에서 1,000억을 받기로 했으니, 기업 후원을 통해 확보하든지 기존 문화지원이나 타 예산을 건드리지 않는 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오페라하우스는 중지되어야 한다.

전용관이나 뭔가 그럴 듯한 결과물을 보일 거면 부산이 보유한 콘텐츠로 만들든가. 아니면 가능성이라도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든가 말이다. 수영야류와 동래야류를 위한 전용관과 실험관을 만들고 두 야류와 다양한 예술장르의 결합을 실험하고 공연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자가 실험에 들어간 다양한 단체들을 지원해서 그 숫자를 늘리면서 각 단체의 강점을 더 강화하는 플랜이 비용도 더 적게 들면서 부산의 문화를 높이는 방법 아닌가. 기왕 영화의 전당은 만들어졌고, 또 부산 국제영화제라는 지역 콘텐츠로 채워진다면 오페라하우스는 어디에 있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명분도 없고, 사업성도 없고, 운영비도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철학의 빈곤을 경계함

이미 뚜렷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던 대안공간 만디가 지난해 없어졌다. 그리고 극단새벽이 깃들어 있던 ‘소극장 실천무대’도 상권의 성장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3월 마지막 공연 이후 비워야 한다고 한다. 대개 이런 공간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료 상승과 활동비라는 그리 크지 않은 돈 때문이다. 3,000억 단위의 공사과, 연 70억 단위의 운영비에 주저함이 없으면서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체계에 인색한 것, 아니 그것을 염두에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문화 예술관련 예산 입안과 집행의 후진성을 읽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자신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공간들이 부산 이곳저곳에 존재했고 또 생겨나고 있다. 그들은 작게나마 스스로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그것들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철학과 콘텐츠가 담긴 공간 300개가 있는 부산을 그려본다면 그것은 문화이고 복지이다. 철학 없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오페라하우스가 그것을 대신한다면 반문화이고 반복지이다. 다양성에 대한 철학도 없이 어떻게 문화를 논하고 복지를 논할 것인가. 철학과 콘텐츠가 빈 오페라하우스의 계획만큼 부산시의 문화에 대한 철학이 빈곤함을 경계한다. —



장전동의 '아지트'

'생각다방, 산책극장'

'생활기획공간 통'

★ 함께가는 예술인 2012 봄호 (36) 가가가가
“너도나도 궁금한 2012년 부산문화예술예산 점검”

2012. 2.13 국제신문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214.22002205339#>

2012. 2. 26 국제신문칼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20227.22027204004>

이해동시의원 블로그 “부산시 2012년 문화, 관광 및 체육 예산안 개요”

<http://blog.naver.com/dong1799/20142817797>

■ 문학 · 출판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비평들

2월 23일 중앙동에 김수우 시인이 운영하는 <백년어 서원>에서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 음악평론가의 새로운 비평집이 나와서 출판기념회 겸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평론가의 여러 말들 가운데 유독 마음에 꽂혔던 말이 바로 '소통'이었다. 음악가와 청중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열정 넘치는 음악평론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과연 오늘날 '비평'이 소통에 얼마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더구나 비평의 오랜 역사를 이어 온 문학비평의 경우에는 어떤지 스스로 돌아쳐보고 궁리하며 생각을 거듭한 끝에 어딘가 알 수 없는 아포리아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참으로 비평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비평가들 자신조차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 요즘의 비평은 과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내 생각의 줄기였다. 문학비평은 작품과 독자를 이어주는 매개 장르이다. 그리고 작가와 세계 사이에 있는 복잡하고 실태처럼 얽혀있는 관념과 세계관을 나름대로 해집으며 요약하는 기능 또한 맡은 장르이다. 여기서 비평가의 언어는 중요해진다. 비평가의 언어는 메타언어이고 2차 언어이다. 이는 작가가 작품에서 나타내는 언어를, 다시 비평가의 말로써 해석하고 평가하고 또 다른 분석의 지평을 제시하는 언어란 뜻에서이다. 물론 이런 모든 비평의 과정은 독자들에게 내보이기 위함이다. 참으로 비평가의 책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요즘 부산의 문학비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산은 비평의 도시라는 말을 해왔다.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비평을 활발하게 해왔고, 비평의 문제의식이나 중요성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도 이어진다. 1950년대 이어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고석규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까지 수많은 평론가들이 나온 곳이 이곳 부산이다. 최근 젊은 평론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마다 한 권의 공동평론집을 내고 있는 <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제5집 공동평론집인 『비평의 윤리, 윤리의 비평』(산지니, 2011)을 살펴면서 비평 언어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한다.

비평은 언제나 독자들에게 소외를 받아 왔다. 이것은 똑같은 뜻에서 문학이 그래왔다는 사실과는 다르다. 독자들한테는 작품이 먼저 보이지 그 작품에 대한 평론은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물론 관심 있는 독자들은 예외로 한다. 간혹, 작품을 읽은 자신의 느낌을 견주어 보기 위해서 작품집 끝에 실려 있는 해설이나 평론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문학잡지에 실린 평론은 일반 독자들에게 포섭되기가 더욱이 어렵다. 평론가들이나 연구자들 위주로 글이 읽히고 '소통'될 뿐이다. 나는 『비평의 윤리, 윤리의 비평』의 머리말에 쓰여진 다음의 대목에 주목하고자 한다. "더욱이 자기만족적인 글쓰기가 아닌, 타인에게 읽힐 것을 고려해야 하는 글쓰기는 타자에 의해, 타자에 대해 다시 쓰일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럴 때, 두려움과 고통은 글쓰기의 공통적인 양식적 자질로 우리에게 엄습하고야 한다."(머리말 '불화를 넘는 약속') 글쓰기의 고통을 말하는 구절이다. 사실 평론가의

정훈

문학평론가. 2003년 부산일보 등단.
평론집으로 <시의 역설과 비평의 진실>이 있음.

글쓰기는 익히 알고 있듯이 '현학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론과 지식은 비평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우리가 비평이 어렵다고 하는 까닭은, 글 속에 이론과 지식이 술하게 나열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앞서 인용한 책의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자기만족적인 글쓰기'를 비평가 스스로 지향하는 데서 생긴다. 최근 비평계에서 널리 입에 오르고 있는 '미학'윤리'정치'와 같은 말들의 남발을 생각해보자. 『비평의 윤리, 윤리의 비평』란 제목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장의 난해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장의 글들을 다 읽지 않아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아무렇게나 펼쳐 본 구절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유령의 형상으로 떠도는 경계에 선 존재들을 양산하는 까닭에 소멸에 대한 외면은, 항구적인 사라지기를 방해한다."('노동하는 사람들') 대개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글들은 독자들을 아주 힘들고 지치게 한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 문장의 주술 관계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외면은(주어)~방해한다(서술어)'이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장이 되어버렸다. 비평의 문장이 알쏭달쏭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비평가 자신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뜻을 분명하게 헤아릴 수 없다면, 비평의 가장 중요하고도 전제가 되는 '판단'마저 불신의 혐의를 받게 된다. 다음은 또 다른 글에서 따온 대목이다. "분유하는 인물들과 맞닥뜨리는 낯선 사건과 사람들, 그리고 낯선 스스로에 대한 정념들의 사적(私的) 기록은 사적(史的) 기록들과 달리 동일성의 논리로 공동체를 상징하는 기록으로는 언어화 할 수 없다."('아무도 아닌 자들의 윤리') 이 문장은

비평의 문장 이전에 글이 될 수 없는 문장이다.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분유'가 혹시 '부유'의 오타라고 쳐도 그렇다.

지면의 제한도 있고 해서 길게 쓸 수는 없다. 비평은 문장의 기본마저 뛰어넘어도 괜찮은 '제왕의 장르'가 아니다. 일제 때의 카프 소속 비평가들의 글들이 지금 볼 때 거의 모두 '실패작'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들의 글이 대부분 '지적 논쟁'을 위한 글들이었고 그런 글을 썼던 비평가들 스스로 '지적 허세'에 빠져 '올바른 글쓰기'를 위한 반성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거의 팔구십 년이 지난 오늘날 비평의 단면을 생각한다. 비평의 위기니 문학의 위기니 하는 말들은 독자들한테는 딴 세상 사람들의 푸념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독자들이 흔히 '고급 언어'나 '고급 문장'으로 여기는 비평의 언어가 앞서 제시한 문장들처럼 갈팡질팡 할 때, 자나 깨나 외치는 비평과 독자의 소통은 술주정뱅이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늘 스스로 자기가 쓴 글을 '독자'가 되어서 다시 읽어보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문장이 될 수 없는 글들이 널려 있는 평론을 읽으면서 좋아할 독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비평가들 스스로 깨우쳐야 할 것이다. —

소통

비평

■ 영화

영화 속에 부산의 이미지
재현된

김이석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인드레이 타르코프스키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현재 부산독립영화협회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앤드 크레딧 & Credit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1982년 부산, 세관 감시반에서 일하던 최익현(최민식)은 세관원들의 조직적인 비리가 발각되자 동료들로부터 희생양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는다. 부양가족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동료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최익현은 해고 직전 우연히 대량의 필로폰을 손에 넣게 된다. 이 물건을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결심한 최익현은 조직폭력배 두목 최형배(하정우)를 만나게 된다.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은 같은 경주 최씨 총력공파라는 이유로 의기투합하게 되고, 이때부터 최익현의 파란만장한 삶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한국적(?) 갱스터영화

‘한국 갱스터영화의 새로운 도약’.
윤종빈 감독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이하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영화평론가들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송능한 감독의 <넘버 3>(1997)와 광택 감독의 <친구>(2001)가 한국영화계에 조폭영화 붐을 일으킨 이후, 조폭영화는 비장미를 살린 정통 갱스터 영화, 희극적 요소를 강조한 조폭코미디, 액션이 가미된 스릴러, 부패한 경찰이 등장하는 형사물 등으로 다양한 변주를 거듭하면서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쏟아지면서 조폭영화는 관객들로부터 식상한 장르로 취급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은 오래된 장르적 관습을 뒤집음으로써 침체상태에 빠져있던 조폭영화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을 다룬 글 속에서 ‘한국적’이라는 수식어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서구의 갱스터영화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가진 영화다. 전직 공무원과 조폭 두목이 같은 성씨라는 이유로 의기투합한 뒤 혈연을 앞세워 권력자들을 차례로 포섭해나가는

과정이나 머리에 기름을 바른 무자비한 사나이 대신 아랫배가 튀어나온 촌스런 ‘아저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설정, 자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자식은 주류 사회로 진입시키겠다는 속물적인 욕망의 표현 등은 <범죄와의 전쟁>이 ‘한국적’ 정서를 살린 새로운 형태의 갱스터영화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들이다. 그 외에도 영화 도입부에 등장하는 뉴스 화면이나 영화 중반부에 삽입된 시위 장면 등 1980년대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풍경들을 영화 곳곳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이 영화는 ‘한국적’인 시대성을 살린 영화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갱스터 무비와 부산

〈범죄와의 전쟁〉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영화가 시작되면 ‘범죄와의 전쟁’을 알리는 뉴스 화면이 나오고 곧 이어 부산 조직폭력배의 대부격인 최익현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후 부산세관, 영도, 중앙동 등 부산시민들에게 낯익은 공간들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물론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인물이다. 〈범죄와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시대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간적 리얼리티를 희생시키는 대신 인물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윤종빈 감독 역시 이 영화의 배경이 "특별히 부산이어야 했던 이유는 없고 사투리도 정서도 익숙해 택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사람 입장에서 부산의 이미지가 조폭 영화 속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부산을 배경으로 한 조폭 영화가 무척 많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외에도 〈사생결단〉, 〈마린 보이〉, 〈범죄와의 전쟁〉 등 많은 영화들이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들만 놓고 보면 부산은 조직 폭력배, 부패 경찰, 일본 야쿠자, 그리고 부패한 세관원들이 넘쳐나는 도시로 오해받을 만하다.

부산 사람들이 폭력적인 영화들이 부산에 대한 인상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영화적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매우 수동적인 존재에 놓여있는 관객들이 왜곡된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관객은 자발적으로 수동적 상태를 선택한 존재들로서, 영화 속에 재현된 세계가 실재하는 세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영화가 매우 사실적인 매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큐멘터리가 아닌 픽션의 경우, 한편의 작품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예술적 필요에 따라 현실에 대한 왜곡과 생략, 과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관객들은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관객들은 현실의 부산과 영화 속의 부산을 구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운대〉의 관객들이 현실의 해운대를 해일 피해의 위험이 잠재된 지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와의 전쟁〉 류의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이 부산을 조폭의 도시로 인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조폭영화가 부산의 인상을 왜곡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염려는 잠시 접어둔다 하더라도 조폭 영화에 부산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여전히 궁금하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는 부산이 영화촬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부산영상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부산에서는 총 60편의 영화와 드라마 등이 촬영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영상위원회가 촬영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촬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장비도 갖추고 있기에 부산은 상당 기간 한국영화에서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할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부산이 국내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적 판타지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관객들은 영화에서 현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초대형 크레인이 늘어선 항구, 피서객이 들어 찬 해수욕장, 광안대교와 산복도로, 그리고 독특한 말투의 사람들 등 부산의 일상적인 풍경들은 일종의 이국 취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관객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적합해 보인다.¹ 특히 갱스터영화처럼 허구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화의 경우 부산은 매우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조폭영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만일 상업영화 속에 재현된 부산의 이미지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부산의 감독들이 만든 영화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한다. 지난해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김지곤 감독의 다큐멘터리 〈할매〉는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삶을 그린 영화다. 공간과 사람들을 대상화시키는 상업영화와는 달리 이 영화는 달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곳에 있는 사물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공간과 사람과 사물들은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최용석 감독의 〈이방인들〉에서는 부산 번두리를 배경으로 정신적인 방황을 거듭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영화 속에서 번두리의 향량한 풍경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의 역할을 넘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준범 감독의 〈도다리〉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걸쳐 입은 조폭들 대신 청춘의 고뇌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진솔한 부산 청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런 영화들 속에서 부산은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1 부산이 이런 욕망의 주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는 한국영화 관객 중 절반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 관객의 비중은 56.4%에 달한다.

포기

M.I.Z.I Theater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일상과 풍경의 낭만극

양지웅 작/연출

2012 가마골소극장 젊은 연출가전2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가마골소극장

김지웅

극작가/연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극작과 MFA 졸업

2006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희곡 당선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희곡 당선

제9회 봉생청년문화상 수상

사진제공 가마골 소극장

극장에 들어서서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의 무대를 쳐다보니 다운 스테이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내부가 보였다. 관객이 입장하고, 진행 요원이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리어 썰렁했던 안내 멘트가 끝난 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여느 지하철 역사에서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일반적인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승객들이 탑승하고 또 하차를 한다. 등장한 인물들은 오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데 열중하고 있다. 전동차의 문이 열리면 불량한 여학생이 전화 통화로 욕설을 하며 등장한다. 다음 정거장에서는 만취한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차에 오른다. 모든 승객이 피하는 와중에 이 남자는 한 여자를 칼로 찌른다. 가해자는 벌일 아니라는 듯이 투덜거리면서 사라지고 여자는 쓰러진 채 천천히 죽어간다. 지하철이 해체되면서 그 여인의 과거인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그곳은 1980년대의 어떤 시장통이다.

일상성의 추구는 연극에서 매우 어려운 화두다. 일상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흥미를 여기는 극적인 부분이 미약한 데다 본디 ‘보여주기’가 그 속성인 연극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일상이며 어디까지가 판타지인지 판가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언급했었던 연극성은 ‘기-승-전-결’의 정밀한 구조 속에서 인과로 이어진 개연성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거의 모든 연극 작품들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극성을 미덕으로 숭상하며, 따라서 작품의 구조는 수학 공식과 닮아있다. 해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헨릭 입센과 안톤 체홉이 출현한 이후 근대 연극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극성에 종종 반란을 일으킨다. ‘연극은 삶과 닮아 있어야 한다’는 신념은 더 이상 삶이 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내었고, 인생에서 어떠한 사건은 인과에 의거한 개연적인 것의 산물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성도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극은 오락성과 교훈성에서 벗어나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연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공연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은 일상극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은 더 이상 극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산발적이고 별 연관성이 없는 에피소드들이 무대를 채우고 있다. 인물들은 있으나 주요 사건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땅에 떨어진 것만을 먹는 거지, 신춘문에 지망생인 알콜중독자 꼴통, 꼴통 아들을 둔 야채장사 아주머니, 이복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이산가족 할아버지, 월남에서 한 쪽 팔을

잃은 채 돌아온 아이스께끼 장사 하씨, 과일 장사를 하는 아저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광주에 남편이 있는 국밥집 이모와 딸, 철딱서니 없는 장발의 가수지망생, 지금은 연탄배달을 하고 있는 운동권 대학생, 시장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등이 등장해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사건을 통한 서스펜스의 증폭이 빈약하기 때문에 배우들은 서브텍스트 구축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했을 것이다. 또한 평면적인 캐릭터를 평면적이지 않게끔 보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인물의 전사를 연구해야 했을 것이고 상대와의 관계, 충돌, 반응에 대한 토론과 연습을 끈질기게 지속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연극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은 시시콜콜한 시장통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시시콜콜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펼쳐진 풍경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의 무거움을 배경에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들의 추억에서 그 시대를 기억해내어 이 연극의 개연성으로 삼아야만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런데 추억이란 것은 개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이다. 요컨대 그것은 차라리 꿈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억이란 객관적인 논리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주관적인 논리로 채색한 상태를 일컫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연극에서는 추억을 일으키는 주체자가 이미 제거되어 있다. 나는 극의 초반에 칼에 찔린 여인의 의식을 빌어 1980년대의 시장통으로 진입을 했지만 시장 안에서 더 이상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 졌다.

도대체 누구의 시선으로 저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인가? 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인물들을 그림다고 여겨야 하는 것인가? 역겹다고 느껴야 하는 것인가? 불쌍한 시선으로 봐줘야 하는가? 아니면 분노해야 하는 것인가? 저 풍경에 대한 해석은 이제 나의 몫으로 넘어오게 된다. 관객 각자는 자신의 추억을 통해 무대에 제시된 풍경들을 재배열하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자신의 색깔을 입혀나가게 된다. 추억의 주체를 없애는 방법을 통해 조금 전까지 가장 객관적인 무대였던 저 풍경이 점점 각자의 주관적인 무대로 변해간다. 연출 양지웅은 여기까지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이 연극을 ‘풍경극’이라는 생소한 낱말로 소개한다.

철학적인 견지에서 ‘풍경’이란 개념은 참으로



흥미롭다. 인식론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칭하는 대상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같은 대상이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철호'라는 나의 친구 하나를 머리 속으로 떠올려본다. '철호'와 함께 했던 과거들이 서서히 떠올라 조합되면서 한 명의 인간을 완성시킨다. 그게 내 친구 '철호'다. 그러나 내가 떠올린 '철호'가 과연 진짜 '철호'인 것일까? 아니다. 나는 언제나 '철호'의 일부분만을 본다. '철호'가 웃던 모습 하나만을 두고도 과연 그가 얼마만큼 즐거웠는지, 아니면 약간은 과장된 웃음이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또한 또 다른 나의 친구의 기억 속에서 '철호'는 내가 그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그 두 인물을 같은 '철호'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철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 결국 나는 그것이 풍경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상상을 해보자. 지금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다. 창밖으로 멀리 구름이 보인다. 눈을 깜빡하고 나서 그 구름을 다시 본다. 여전히 구름은 하늘 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방금 전과는 무언가가 달라졌다. 아까는 나무들 위로 구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만 위에 있다. 앗,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구름이 보이질 않는다. 깜깜하다. 하지만 잠시 후에 터널 밖으로 나가면 구름은 여전히 하늘 위에 있을 것이다.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멈춰있다시피 한 구름도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물며 멈춤이 없이 계속 움직이는 인간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그 속에 '철호'는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내가 '철호'를 보는 시선엔 나만의 고유한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나의 시선에 반응하는 '철호'의 시선도 나를 보는 데에 있어 고유한 이미지를 투영한다. 또한 '철호'를 보는 또 다른 나의 친구의 시선도 고유한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미지들은 각각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누가 어느 한 쪽을 잠식할 수 없는 상호주체적인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전체를 이룬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 혼자에 의해서가 아닌 모두 함께 '철호'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듯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어떠한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 하나 뿐인 것이고 바로 진리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세계의 각 부분을 주체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로 나아간다.

이 연극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은 지나간 과거의 풍경을 통해 지금 여기를 은유하려고 한다. 저 비참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지나가버린 옛 시절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 말한다. 오히려 작가이자 연출자인 양지웅은 그 때를 각박한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보이는 삶으로 보고 있음이 느껴졌다. 최소한 저 때는 정이라고 불리는 모호한 따뜻함이 존재하지 않았느냐고 역설하는 듯 했다. 그리하여 일상적임을 강조하는 배우들의 연기와는 대조적으로 이 연극의 전체적인 정서는 낭만으로 흐른다. 흔히 낭만적이라고 함은 현실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영웅적으로 극복하거나 아니면 몽환적으로 회피할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일상에 낭만이 없을 리는 없지만 낭만을 누리고 난 후의 현실은 언제나 시궁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예술의 숙명이 아닐까 한다. 욕망의 실현에 방해가 되면 제거해 버리지만 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손을 뻗는데 몰입하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 연극 안에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병렬적으로 펼쳐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축을 찾으려면 나는 거지와 꼴통의 관계를 꼽는다. 내가 한 명의 관객이 되어 풍경 속으로 진입하면서까지 찾아야 하는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천박하지만 순수한 거지, 그 거지를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고 하는 꼴통은 이 연극이 담고 있는 정서와 일치하며 주제로 승화된다. 그러기에 거지를 잃은 꼴통이 그토록 절규한 게 아닐까.

연극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허술한 개연성, 설득력이 결여된 안이한 결말, 과거로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장면의 모호한 이미지 처리라는 단점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 중간 중간 나오는 재치 있는 안무, 연출 양지웅의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장면 전환, 젊은 배우들의 열연, 관객들의 열연 반응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미덕을 보여주었다. 내 머리 속에 그림 같은, 시 같은 풍경을 아로새겨준 그들에게 감사드린다. —

춤

허경미 무용단 Red Step의 〈外치다〉

2011년 11월 12일(토) 하오 7시, 13일(일) 하오 5시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최찬열 민족미학연구소기획위원
사진제공 허경미 무용단

물구나무를 서고,
격렬하게 엎어지는

처절한 몸짓에는
지독한 그리움이
사무쳐있었다.

꽃



허경미 〈꽃 II〉

춤꾼 허경미의 몸짓에는 짙은 표현력과 강한 서정적 울림이 있다. 그녀는 그런 춤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솔직하고 세심하게 드러내며 세상 혹은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오래전, 허경미는 〈꽃 II〉(2003년 8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고독한 정서를 섬세한 몸짓으로 풀어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꽃에 투사했다. 춤꾼의 꽃-되기, 꽃의 춤꾼-되기. 춤은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꽃의 움직임이 되었고, 꽃의 움직임은 춤꾼의 흐느적거리는 춤이 되었다. 수줍은 듯 두 손으로 입을 감싸고, 양 무릎을 붙인 채 살포시 돌리면서 굽실하는 소담한 춤사위에는 춤꾼/꽃의 외로움과 도도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꽃봉오리가 터지듯 두 팔을 위로 휘둘리며 도는 춤사위에는 봄꽃의 생동감이 솟아났다. 그리고 물구나무를 서고, 격렬하게 엎어지는 처절한 몸짓에는 지독한 그리움이 사무쳐있었다.

모진 외로움을 도도하게 견뎌내는 춤꾼/꽃의 꽃꽂함을 춤으로 잘 형상화한 예쁜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서 허경미는 춤꾼들/꽃들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들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고 숨통이 턱턱 막히듯 소통하지 못한다. 황량한 들판에서 비바람에 쓰러지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따로따로 고독한 자유를 노래한다. 그러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접촉이 이루어지지만, 소통의 열망은 외로운 몸짓들 아래로 깊숙이 잠겨 든다. 서로 어긋나는 정서가 동시에 표출되는 몸짓은 울림이 강하다. 지독한 외로움과 소통의 욕망을 내면 깊숙이 숨기는 춤꾼/꽃의 도도함을 서정적 몸짓으로 훌륭하게 표현한 작품이었다.

그리고 인도로 춤 유학을 떠났다 돌아온 그녀는 〈Kiss〉(2009년 11월 24일-27일,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다시 소통을 얘기한다. 공연은 소통이라는 큰 주제 아래 죽음, 사랑, 술, 눈물, 신의 다섯 핵심 주제로 엮인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 그리고 사람과 신 사이에 그어진 굵은 실선을 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면서 소통과 단절에 따르는 여러 상반된 정서를 담아낸다.

키스



허경미 〈Kiss〉

키스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허경미는 깊은 사랑의 키스로 소통을 갈망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녀의 〈Kiss〉는 어설프다. 어설프 한 키스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화해와 합의이다. 화해와 합의는 우정의 산물이다. 화해와 합의로는 어떤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고통을 동반하는 사랑의 산물이다. 진정한 ‘관계맺기’에 필요한 것은 우정이 아니다. 관계맺기에는 어떤 위대한 우정보다 차라리 하찮은 사랑이 쓸모 있다. 사랑의 키스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고, 그런 고통은 진정한 관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우정의 키스가 아니라 사랑의 키스가 필요했다. 〈Kiss〉에서 지극한 ‘닿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그녀는 세상을 향해 목이 터지라 외친다. 한 명의 춤꾼이 무대 전면에서 객석을 향해 “안 들려?” 소리치고 대답을 기다리지만, 외침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되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메아리뿐이다. 그리고 모든 춤꾼이 다 함께 소리친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서로서로 공명하지 못하고 엇갈린다. 소통을 갈구하는 몸부림으로 무대는 짝 찬다.

外치다



허경미 〈外치다〉

〈外치다〉에서 허경미는 닿을 곳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는 소통의 외침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살려낸다. 상수에서 하수로 곧게 뻗은 일자 도형, 대각선 도형, V자 도형과 원형 등으로 배치된 군무는 양식적 스펙터클을 연출한다. 일사불란한 군무가 구축하는 질서 잡힌 도형과 무질서한 군무가 빠르게 교차하며 무대는 역동적으로 출렁인다. 또, 현란한 조명은 무대를 안정감 있게 구획하며 서사구조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공연은 역동적 움직임, 현란한 조명, 양식적 도형으로 매혹적인 스펙터클이 된다.

〈外치다〉에서 춤은 다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매체가 아니다. 바람이 불고 바람에 맞서는 말, 흩어져 날려간 바람의 말은 몸짓-감각으로 되살아나 만물과 소통하고자 한다. 춤추는 몸의 말은 무엇을 지시하지 않고 그 자체로 드러나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격렬하게 운동한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빼어난 부분은 이런 몸의 떨림을 빼어나게 표현한 이용진의 솔로 춤이었다. 흐느적거리는 몸짓으로 모든 관절을 날카롭게 꺾으며, 소통 부재의 암울한 고통을 내면으로 삭이는 그의 춤은 내 안의 가장 깊은 곳과 내 밖의 가장 먼 곳이 떨림을 통해 공명하게 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무대는 수많은 문자로 뒤덮인다. 춤꾼의 몸에도, 무대 바닥에도, 각종 무대장치에도, 무대의 벽면에도 문자가 투사되며 무대는 온갖 말로 넘쳐난다. 그리고 춤추는 춤꾼의 몸은 문자의 홍수 속으로 사라진다. 몸의 말은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 무-바탕으로.

〈外치다〉에는 이국적인 몸짓들이 가득하다. 그것들은 인도 요가와 한국의 탈춤 등 여러 전통춤을 두루 익힌 춤 만든 이의 다채로운 이력 때문이라. 춤 만든 이는 이런 독특한 춤사위를 극장 공간에 잘 어울리게 무대화해 작품의 주제를 깔끔하게 표현한다.

아쉬운 점도 있다. 춤 만든 이는 큰 무대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지 지나치게 현란한 조명과 여러 양식적 도형에 의존하며 화려한 스펙터클을 연출한다. 온갖 형태의 휘황찬란함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스펙터클 사회의 기만술은 어느덧 춤에도 스며들어 기존의 춤은 자신의 물적 토대를 잃어버리고 현란함만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춤이 스펙터클을 지향할 때 삶에 토대를 둔 몸짓은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진솔한 몸짓-감각은 언제나 스펙터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삶과 현실에 밀착한 몸의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춤으로 스펙터클이 조장하는 기만적 관계를 폭로하는 진정한 소통의 몸짓을 요망한다. —

화제의 예술인

네트워크

젊은 그대

공간

Culture+

대안공간 너머 대안활동을 생각한다
 젊은 이야기꾼 주체의 등장
 희망을 꽃피우는 지역공동체 희망세상
 지역문화지 〈안녕 광안리〉
 도쿄 코엔지의 의미 있는 즐거움

세계문화

대안공간

너머

대안 활동을

생각한다

김준기
전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사진제공 김성연

김준기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예술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가나아트 기자, 가나아트센터 전시기획자, 공공미술팀장으로 일했다. 2006년 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전시팀장, 공공미술추진위원회 팀장으로 일했다. 2007년에 석남미술상 젊은 이론가상(추종 김복진미술상)을 받았으며, 경희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했으며(2007-2010), 현재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안공간 '반디'

'반디' 건물 해체작업 사진

김성연은 부산출생으로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뉴욕대학교(NYU)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동명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영상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다루는 작업을 하며 그동안 13번의 개인전과 부산비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후쿠오카 트리엔날레 등에 초대되었다. 1999년부터 기획자로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해왔다.



김성연 前 대안공간 '반디' 대표

반디가 멈췄다. 광안리 바닷바람이 스치는 주택가 목욕탕 건물에서 예술허브 역할을 해왔던 대안공간 반디가 12년간의 활동을 접고 멈춰 섰다. 반디는 1999년에 문을 연 대안공간섬의 후신이다. 30대의 꿈많은 청춘, 이동석과 이영준, 그리고 김성연이 의기투합해서 시작한 대안공간 섬은 서울의 루프와 풀과 더불어 한국의 대안공간 원년 멤버 3인방 가운데 하나다. 섬을 접고 잠시의 휴지기를 거쳐 김성연이 반디를 꾸려온 것이 10년의 세월에 이른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반디의 활동은 눈부셨다. 한국은 물론 해외의 예술인들까지 부산을 방문한 예술인들 다수가 반디를 찾곤 했다. 수많은 부산의 예술가들이 반디에 모여 새로운 예술의 꿈을 꾸었다. 그런 반디가 끝내 멈춰서고 말았다.

몇해 전부터 대안공간의 대안성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대안공간들이 출범하던 시기에 비해 제반 여건이 바뀔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대안공간 무용론이 대두하기까지 하는 시점에 폐관 결정을 내린 것이라 심란함의 크기가 더 하다. 부산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의 예술가들과 후쿠오카나 타이베이와 같은 이웃 나라도시 예술인들도 반디의 폐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주변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김성연 본인이 심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이다. 이 글은 한 인터넷 매체에 실었던 김성연과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대안공간의 현주소와 그 이후의 대안적인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자 몇 가지 논점을 다시 생각해 본다.

수도권의 대안공간 활동과 부산이나 여타 지역의 대안공간 활동은 사뭇 다르다. 대안공간 활동은 열악한 미술환경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특히 종다양성이 부족한 전시공간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출발한 대안공간 반디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다수의 젊은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실험과 도전의 장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작품을 발표하는 전시의 장이 아니라 예술작품과 예술현상을 의논하는 의제생성의 장이기도 했다. 반디는 전시와 더불어 작가와 큐레이터 레지던시, 작가 재교육 프로그램, 큐레이터강좌, 시민강좌 등을 열기도 했다.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과 같은 신진작가공모전과 'B·ART'라는 제호의 월간지 발행에 이르기까지 반디의 역할은 전방위에 걸쳐 있었다.



'반디'에서 발행하는 "B·ART" 미술문화잡지



'반디' 2층 Meeting Space



시청자미디어센터 Video Festival



'반디' 직원들

역사에 있어 창조적 개인의 역동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화한 과거의 문제를 평가할 때나 가능한 얘기다. 척박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창조성과 역동성을 기대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김성연의 반디 이후에도 대안공간의 대안적인 활동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역을 확보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활동,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공간확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술을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소통기제로 자리잡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성연은 이 대목에서 구조의 문제를 말한다. 그 자신도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활동의 장을 만드는 일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고 동행할 것이다.

회화에서 사진, 설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시각예술 생산자로서, 비평가, 큐레이터들을 쏙스럽게 만드는 논리적인 말솜씨와 글솜씨를 가진 비평적 담론의 생산자로서, 한없이 후덕하고 겸손하면서도 선배들에게 쓴소리와 단소리를 가려줄 줄 아는 강단있는 예술인으로서, 김성연은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받아왔다. 만약 김성연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이미 지금까지의 활동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는 분명히 대안공간 이후의 대안실천을 일군 또 다른 선구자로 남을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걸은 길에 관한 믿음 때문이기도 하거나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디의 멈춤은 대안공간 패러다임의 분절을 상징한다. 대안공간이 2000년 이후 10년간의 대안이었다면,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미 많은 답이 나와 있다. 초기의 대안공간들이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활동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수의 공간들이 전시 기능 이외에도 아카이브나 레지던시로 미술정보와 인적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다. 커뮤니티아트 역할을 찾아 지역재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예술행동도 새로운 역할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신진작가를 발굴해서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대안공간의 활동방식이 예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대안공간에서 대안활동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다. 그래서인지 반디의 폐관은 멈춤이 아니라 숨고르기로 보인다. 폐관 이후에도 반디의 빛은 여전히 형형(熒熒)하다. —

반디의 폐관은 예정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뉴스였다. 여러 사람들이 반디를 살리기 위해 머리와 가슴을 모았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있었을 텐데, 왜 차선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대안공간의 역할에 관한 그 나름의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기실 대안공간은 비영리공간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간지원을 받는 곳이다. 매번 불확실하지만, 일정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영역에서 해주는 거의 유일한 지원이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디렉터의 몫이었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이상 버텨내기에 버거웠을 것이다. 주변의 지인들을 물론이고 공적인 영역의 정책단위에서조차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이런 저런 궁리를 해보았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폐관 이후에도 재개관을 기대했다. 필자 또한 몇 가지 정보를 근거로 반디의 부활을 예견했다. 그러나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반디가 떠난 광안리에는 아직 새봄이 오지 않았다. 물론 반디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반디구출작전도 있었고, 공간기부, 유류공간활용, 예술협동조합 등의 논의도 있었다. 비영리갤러리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결과는 휴관이 아니라 폐관이었다. 김성연은 대안공간 이후의 대안을 위해 담담하게 독배를 마신 것 같다. 대안공간이 미술계의 유의미한 공공기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출과 실질적인 제도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폐관으로 웅변한 것이다.

부산은 한국근현대미술을 견인한 굵직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술운동의 진원지로서도 큰 역할을 했고, 대안공간의 활동도 그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활발한 편이다. 미술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미술인으로서 김성연에게,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충분히 많은 일을 했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해놓은 일보다는 할 일이 더 많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다. 김성연이 지금 멈춘 것은 현재 공간에서의 대안공간 운영이다. 그는 대안공간을 운영하는 일에서 대안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의 지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왔다. 따라서 그는 이미 홀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디 때려치운 거 보면 정말 힘들긴 힘들었나보다.



'반디' 전시공간



'반디' 전시행사

젊은 이야기꾼 주체의 등장

꿈꾸는 소설가, 부산의 장소에서 이야기를 길어 올리다

황은덕

소설가. <좋은 소설> 편집위원.
십여 년 넘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으나 유목민이 아닌
게 분명하다. 한번 마음에 품으면
사물이든 사람이든 쉽게 바꾸지
못한다. '문학주의자'라는 말을
칭찬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소설집 <한국어 수업>.
현재 부산대 전임대우강사.

사진제공 배길남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토익점수와 스펙, 자기계발과
경제력이 선(善)으로 간주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백수 돌입'을 선언했던 일은. 배길남
소설가는 스스로를 '날백수'라고 부른다.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 그리고는 작업실에서
조용하고 치열하게 이야기꾼으로서의 꿈을 쫓는다.
김해의 도요마을에서 최영철 시인이 물었다. "전업
작가 할 겁니까?" 그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러자
최영철 시인이 조언했다. "어떻게든 다 굴러갑니다. 나도
이때까지 전업으로 시 쓴다고 날백수로 잘 지내왔습니다."
배길남 소설가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도와준다고 믿고 있다.

백수 5개월째,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다. 아버지가
병환중이셨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절절했다. 전업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학원강사 생활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치예?" 그런데 그날 오후, 뜻하지
않게 보상을 받을 일이 생겼다. 배길남 소설가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며 확인했다. "계속 하라고 예?"
현재 그의 예금통장에는 16만원의 잔고가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그는 전업 작가로서의 삶, 치열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배길남

"제가 가진 상상력과 지식, 열정을 동원해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은 정말 설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내와 자책, 고통 등이 존재합니다."

배길남 소설가는 누구?

“저는 2011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사라지는 것들」로 등단한 총각 소설가입니다. 도라지 길(桔), 사내 남(男). 즉 도라지 사내입니다.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토박이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것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끄집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지만 「증오하지 말고 심수창처럼」 같은 뜬금없는 꼴통 소설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가는 예술인』에 한 페이지 소설 「늪름한 이병욱」시리즈를 연재중입니다. 요즘에는 장편 역사 소설, 『가제: 동래부 왜관 수사록』을 집필 중입니다. 광해군 시절, 부산의 두모포 왜관이 조선 전역에 미쳤던 영향력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 등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사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탈이지만, 써놓고 너무 재미있다고 혼자 킬킬대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꾼이 보여주는 저항의 방식

배길남의 소설은 무한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자본주의의 폭력적 그늘에 눈길을 던진다. 등단작 「사라지는 것들」에는 부산의 오래된 서점인 동보서적과 문우당 서점의 폐업이 주요사건으로 등장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두 서점의 폐업소식을 듣고 ‘깊은 곳을 폭 짙린 듯 충격과 허전함’을 느낀다. 약속 장소를 동보서적으로 잡아 상대방을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여행지도 등을 구하려고 문우당 서점을 찾아가던 일은 비단 소설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산 사람들이 공유한 공통 기억일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남포동 길을 걸으면서도 화려한 국제영화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가려진 ‘아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산’을 생각한다. 부산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에게 부산은 ‘절대 Dynamic 하진 않다’는 게 주인공의 생각이다. 두 서점의 폐업은 지역 경제의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두 서점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은 그 장소에 각인된 사람들의 추억과 그리움과 애환, 즉 장소의 역사성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이 지워지고 찢긴 미술관의 고문서를 복원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사라지는 것들을 향해 다짐하는 소설가의 각오처럼 보인다. 거대자본과 경제논리에 밀려 잊히고 사라지는 것들을 다시 불러내어 명명하는 것.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이 시대의 이야기꾼이 이행하는 자본의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인 것이다.

‘기억저장소’인 부산, 소설가와 사면은 서로 닮았다

배길남의 소설에서 부산의 장소는 기억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사라지는 것들」에서 폐업한 동보서적은 여자친구가 8년간 근무한 곳인 동시에 주인공이 ‘비, 웃음소리, 술잔, 키스’ 등을 떠올리며 삶의 교감을 기억하는 장소이다. 단편 「썩은 다리-세 번의 눈물」에는 철거된 옛 중앙시장 건물과 시장 윗동네인 ‘옥상마을’이 등장한다. 오래전 지도 속에서 사라진 이 장소들은 주인공의 기억을 통해 되살아나고 재구성된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며 재현은 불가능하다. 비틀고 뒤틀리고 삭제하는 이야기꾼 주체가 요구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배길남 소설가는 기억에 의지해 부산의 장소에 내재된 성장의 과정과 상처와 페이스스를 끄집어낸다. 또 다른 단편 「부산데일리 홀랄라 기획부」에서도 부산의 장소는 비루하고 진창일지언정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터전으로 주인공의 정체성에 깊숙이 관계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과 무의식을 표출시킨다는 점에서 소설가의 이야기와 사면의 주술행위는 서로 닮았다. 장소에 내재된 기억과 역사성. 이야기꾼 주체는 자신의 목소리를 덧칠하며 이러한 기억과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야기 탄생의 황홀한 순간을 맞이한다. 근대문학이 종언을 맞이했다는 풍문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꾼의 상상력은 여전히 거친 야성과 활발한 감성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배길남에게 소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섬과 해골섬’입니다. 스티븐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보물섬과 거기에 속하는 작은 섬이 해골섬인데요. 말하자면 둘은 같은 섬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같은 섬이라도 주인공 짐을 포함한 동료들에겐 보물섬이지만, 악당 실버의 편에 섰다 죽어간 해적들에겐 말 그대로 해골섬이 되고 맙니다. 제게 소설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가진 상상력과 지식, 열정을 동원해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은 정말 설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내와 자책, 고통 등이 존재합니다. 제가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선 이후 갖게 된 소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유 시간, 인간관계 등은 정말 보물섬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물론 거기에는 물질적 보상이나 보편적인 사회의 가치, 그리고 그 속의 관계들과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조금만 크게 다가오면 뺄속까지 시려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제가 선택한 길이 치열한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투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치열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제게 소설은 해골섬이 아닌 보물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스토리텔링)를 공유하는 여타 장르에 소설이 콘텐츠 역할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소설이 다른 장르들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소설 원작을 다른 장르의 콘텐츠로 사용하는 일에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부산의 항구와 포구를 다루는 스토리텔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설 형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한 페이지 소설’을 연재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설이 콘텐츠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설 안에서 이야기가 정교하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요즘 쓰고 있는 장편소설의 경우, 고어의 높임말 표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령 부산 사투리의 경우 “더”를 첨가하면 높임말이 됩니다. “했심니더”의 경우가 그렇지요. 그런데 고어의 경우 “사옴”이나 “하옴” 즉 “했사옴니더” “하옴니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부산 사투리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설쓰기는 빙의의 과정

배길남 소설가는 ‘빙의’라고 표현했다. 사면이 신령을 통해 빙의에 이르듯, 소설가는 상상력을 통해 타자들의 삶을 써내려 가는 것이다. “내 삶은 시트콤”이라고 말하는 그는 시종 유쾌하고 엉뚱했다. 하지만 소설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치열했다. 우리 문단에 드디어 젊고 야심찬 이야기꾼이 등장한 것이다. —



희망을 꽃피우는 지역공동체 희망세상

강수걸

산지나출판사 대표,
소통과창조를위한문화포럼 사무국장

사진제공

강수걸

희망세상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시민모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주민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인간존엄의 정신을 실현하여 따뜻하고 정이 흐르는 지역공동체 희망이 꽃피는 세상을 실현하려 한다. 세상사람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는 그날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낼 때가 있었다. 어떤 삶을 살지 결정 못하고 선택을 미루고 있었다. 누구는 머리를 자르고 속세를 떠나 공동체의 삶을 선택하였고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K 선생을 처음 만났다. 선생 자신의 결혼식이 열린 모교의 금정회관이었다. 신부 측 하객으로 참석해서 신랑을 처음 대면했던 것이다. 그는 이후 반송에서 병원을 개원하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마을을 가꾸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해 나는 취업을 선택하였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반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나는 10년 직장생활을 끝내고 2005년 2월에 부산에서 출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반송에서 해운대 구의원을 하면서 병원 일을 하는 K 선생을 다시 만났다. 1998년 창립하여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였다. 상업성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변의 살아 있는 이야기에서 기획 출판을 시작하자라는 출판에 대한 나의 초발심이 제안의 배경이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31일 『반송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오기까지 저자를 만나고 통화하며 괴롭히는 시간이 지속되었다.

『반송사람들』은 부산 해운대 반송 지역 주민들과 그곳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가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실천적 삶의 이야기이다.

반송은 부산 변두리에 위치하며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부산시가 도심의 판잣집들을



느티나무 도서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시한 집단이주정책으로 철거민들이 옮겨오면서 마을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촌 동네, 못 사는 동네라고 은근히 멸시를 받아오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0월 진주에서 열린 제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반송은 당당하게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그 뒤에는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역 활동 단체가 있었다.

『반송사람들』의 저자는 지역에서 개인의원을 열고 있는 의사이면서 1997년부터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역 모임을 만들고 이끌면서 주민들과 함께 문화공동체,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활동 내용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나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 주민자치이며, 작은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네트워크' 공동의장이자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황한식 교수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반송형 모델에 대해 계속 분발을 촉구하고 내용의 추천사를 써주었다.

그렇게 책을 내고 산지나는 8년차를 지나는 중견 출판사가 되었고 2005년에 '희망세상'으로 이름을 바꾼 반송형 모델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아이들이 놀러오고 아줌마들이 수다 떨고, 할머니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아빠와 이이들이 함께 캠프를 하는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으며, 카페와 도시락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희망세상'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월 10일, '희망세상'을 방문하였다.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인 '희망세상' 김혜정 회장을 마을기업 카페 '나무'에서 만났다. 김혜정 회장은 1997년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실무로 일을 시작해서 이후 2005년 '희망세상'으로 조직의 이름을 바꿀 때도 그 중심에 있었으며, 지난 총회에서 '희망세상'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반송사람들』 출판기념회 때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출산휴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다시 시작할 시점이었다. 오랜만에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 매우 반가웠다. 700명 조직의 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부산문화계와 소통하는 짧은 시간을 가졌다.

카페 '나무'가 예술가와 접점을 찾고 아래반송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꿈꾼다는 김혜정 회장은 윗반송의 문화공간인 느티나무도서관이 희망세상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면 카페 '나무'도 아래반송에서 대중의 관심 속에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2011년 11월 17일 오픈한 카페 '나무'는 영산대학교 학생들과 아래반송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3월 개학하면 예술가들이 마을 카페 '나무'를 발표의 장으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전시의 공간, 후쿠쿠의 반란을 꿈꾸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마을 기업으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사업이 반응이 좋다고 한다. 제법 수익도 나는 모양이다.

“날마다 소풍 도시락 사업은 20개 이상이면 반송 이외 지역에도 배달을 합니다. 안락동, 센텀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루 80개 판매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2012년까지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생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느티나무도서관은 회원 수 증가로 자생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부산지역의 예술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등 부족한 점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해 보였다.

“마을 도서관에 사서가 있어 대출반납 기능이 작동되는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사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강사료와 회원의 회비로 70만 원의 사서인건비 마련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은 문화공간에 강사를 파견하는 강사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 있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700명의 회비가 실제적으로 큰 힘입니다.”





'희망세상'의 김혜정 회장

마을기업이라는 변화의 길을 선택한 희망세상. 2007년 NGO형 민간도서관이라는 선택으로 대중화에 성공하며 마을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지 5년. 갈 길이 멀지만 고민의 지점은 다른 마을도서관과 비슷하다.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서에 대한 유급지원이 필요하고, 예술가 등 강사의 지원을 통해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원이 많은 노티나무도서관도 그 동안은 회원의 자발성이 무기였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주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마을기업 모델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순한 조직이다. 마을기업처럼 작은 규모의 기업이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다. 산지니라는 조그만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얼마나 경영이 힘든지 경험하고 있기에 카페나 도시락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 잘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자유로운 개인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더 바람직한 사회와 도시, 마을을 만드는 총론에 동의하면서도 더 구체적인 전략과 성공사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든다.

하지만 15년을 버티며 성장한 풀뿌리의 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걱정을 잠재운다. 스페인의 마을공동체 몬드라곤에 대한 책 두 권을 며칠 전에 읽었다. 몬드라곤은 기업 목표인 고용 창출을 위해 고객 중심(고객과의 전략적 협력), 발전(성장, 국제화, 시너지 효과 극대화), 혁신(혁신 경영, 기술 개발), 수익성(경쟁력 제고), 공동체 참여(기업의 책임), 협동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운동성과 사업성의 두 측면을 통일시키며 계속 성장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반송형 모델도 부산지역사회와 발전방향을 함께 토론하며 고민을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이번 문화 생성시대 담방을 통해 나 역시 대안 모색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지역문화지 〈안녕 광안리〉

사진 및 글
오상준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



'안녕 광안리' 창간호

부산 광안리만의 색깔을 찾는 지역문화잡지가 있다. 광안리의 숨겨진 속살을 벗기고 감춰진 이야기를 발굴하며 몰랐던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게 잡지의 취지다. '안녕 광안리'가 바로 그 잡지다. 만드는 사람은 광안리 주변에 살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는 이른바 '광안리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잡지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하는 작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실천의 힘을 믿는 계간 무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1년 6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8월 2호, 12월 3호가 나오는데 이어 2012년 3월 4호가 발행될 예정이다.

'안녕 광안리'를 잡지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광안리사람들'은 2012년 1월 20일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아예 '주식회사 광안리사람들'이라는 법인을 창업했다. 잡지 발간을 통해 형성된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공연과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하기 위해서다. '안녕 광안리'의 이 같은 진화는 '논의는 많지만 실행력이 부족한' 부산지역 문화판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녕 광안리' 2호



'안녕 광안리' 3호

1. 누가 만드나 : 광안리에 사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 '안녕 광안리'에는 윗집 사장, 1인 출판사 대표, 인테리어업체 대표, 디자이너, 건축사, 대학교수 등 직장인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잡지의 성격도 개성이 넘친다. 공통점은 광안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저마다 문화적 소양과 내공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역량을 잘 융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승욱 발행인은 '서울독립예술제'를 기획한 문화기획자다. 이 발행인은 광안리에서 자칭 '생선가게'(수정궁 윗집)를 운영하고 있다. 장현정 편집인은 록밴드 'Ann' 보컬 출신으로 1인 출판사 호밀밭출판사 대표와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산노리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아트디렉터는 김대영 스토리진 실장이 맡아 잡지를 '비주얼'하게 꾸미고 있다. 기획은 유일한 홍일점인 정민정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다. 외국어학원에서 일하는 이점을 살려 외국인과의 인터뷰, 번역을 맡고 있다. 사진은 이영희 공간디자인 마루 소장과 한기성 본웨딩 대표가 담당하고 있다. 편집위원으로는 김승남 일신설계중합건축사사무소 사장, 김형곤 동명대 디지털엔터테인먼트대학 학장(방송영상학과 교수), 류성효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예술감독, 박재홍 진심 대표, 박상현 음식칼럼니스트, 김유리 소설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영희 소장은 "우리 멤버들이 다 좋은데 술을 잘 안 마신다"고 다소 섭섭한 표정으로 귀띔했다.

2. 뭘 다루나 : 포구의 재발견에서 까대기, 트랜스젠더바까지 '안녕 광안리'는 어려운 학술적 분석보다 일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한다. 문화예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모두 문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광안리에서 늘 접하면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식이다. 이승욱 발행인은 "기존 잡지나

신문이 다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식으로 다루는 것이 편집 원칙"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광안리라는 지역의 내재적 가치를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금기의 영역이 없다. 트랜스젠더바(3호), 까대기(2호, 헌팅·이성을 꼬신다는 뜻)와 작업의 사도(2호), 모래 위의 개들(2호), 클럽(1호), 파티공간(3호)처럼 광안리의 속살을 건드렸다.

뿐만 아니라 광안리의 다양한 문화 및 문화공간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창간호에서 광안리에 숨겨진 보석같은 문화 공간인 청소년인문학서점 '인디고서원', 대안문화공간 '반디', 도시철도 수영역 문화공간 '쌈', 인문학공간 '빈빈'을 소개했다. 안타깝게도 3호에서 대안문화공간 '반디'가 10년간의 활동을 접고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실었다.

이와 함께 '내 사랑 우수의 마적' '간이역' '추억여행' '무아' '황천수 색소폰 라이브' '아마존' '세라비'처럼 다양한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3호)을 알렸다. 아마존은 국악인이 라이브로 국악을 들려주는 곳이라고 한다. 이 밖에 잡지에서 추천한 음식점과 카페를 보면 "광안리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가보고 싶을 충동이 생기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광안리를 재발견하려는 시도도 눈길을 끈다. 2호 '광안리, 포구의 재발견'에서는 김승남 편집위원이 난개발로 사라져 가는 부산의 포구를 예리한 칼럼으로 분석했고, 이승욱 발행인은 광안리의 해녀를 인터뷰했다. 이 발행인은 "해운대의 초현대식 고층건물을 배경 삼아 해녀가 바다 속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광안리는 혼돈스러운 포구"라고 말했다.

김형곤 교수는 광안리에 관한 과거 신문기사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서 문화비평을 쓰고 있다.



2011년 8월 26일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무대에서 열린 2호 발간 기념 해변 파티 '광안리의 달'. '안녕 광안리' 제공

3. 운영방식과 재원조달 : 재능 기부, 기업 후원 및 업소 협찬
‘안녕 광안리’ 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원조달 문제. 참여자들의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최소 비용으로 제작한다는 게 원칙이다. 사무실과 편집회의를 하는 공간은 수영구 남천동 공간디자인 마루 사무실로, 마루 이영희 소장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쇄비 원고료 등 제작비는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창간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송월타월)과 광안리지역 업소들의 협찬금, 후원광고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현재 호당 5000~7000부 정도 발행해 광안리 주변 업소 50곳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잡지에 대한 반응이 좋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비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배부처를 늘리고 있다.

온라인 매체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블로그 형태의 웹페이지(www.gwanganri.com)와 페이스북([facebook.com/gwanganri](https://www.facebook.com/gwanganri)), 트위터(twitter.com/gwanganri)를 운영하고 있다.

장현정 편집인은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및 지자체의 공공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기업과 공동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4. 새로운 실험 : ‘광안리사람들’에서 ‘주식회사 광안리사람들’로 ‘안녕 광안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광안리사람들’이 올 들어 ‘주식회사 광안리사람들’로 전환한 것은 잡지 발간 이외의 다른 문화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부산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 공감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운동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머리 속으로 구상하고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김승남 편집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광안리에 살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재미있는

잡지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잡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어서 잡지가 나올 때마다 문화이벤트 형태의 파티를 기획해 함께 즐겼어요. 지난 8월 26일 2호 발간을 기념해 해변 파티 ‘광안리의 달’을 오후 4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부산시민과 피서객 수천 명이 참가해 성공적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여름철 해변 파티라는 공연을 성대하게 여는 등 잡지 발간 이외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아예 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주식회사 광안리사람들’의 또 다른 올해 목표는 사회적기업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생계를 이유로 예술을 포기하는 젊은 예술가를 고용해 마음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다.

‘안녕 광안리’의 실험적 모델은 부산지역 문화계에 ‘눈굴리기 효과(snowballing effect)’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안리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 모여 시부저기 시작했던 잡지 발행을 계기로 지역 문화행사를 기획·진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진화할 예정이다. 조그만 눈뭉치가 구르면서 눈사람으로 커지는 것처럼.

관건은 실천이다. 눈을 굴려야 커지듯 문화도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통해 사람들과 부대껴야 활성화되는 법이다. 이런 점에서 ‘안녕 광안리’의 시도는 마스터플랜은 거창하지만 정작 일상의 현장 속에서 실천력이 떨어지는 부산시의 창조도시 전략과는 대조적이다. 부산시 문화정책이 시설과 하드웨어 중심인 반면 ‘안녕 광안리’는 상상력과 아이디어 중심이다.

이들의 도전이 지역 문화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



‘안녕 광안리’ 편집진이 보는 광안리의 매력

이승욱 발행인

광안리는 온갖 것이 뒤섞여 있는 ‘해물잡탕’ 같은 공간이다. 이런 혼돈과 무질서야말로 진짜 광안리, 부산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 넓지도 않은 해변에 다양한 건물의 규모도 그렇지만 상점, 숙박시설, 주거, 놀이기구까지 섞여 있고, 비엔날레 작가들의 작품과 인조 야자수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의 연령과 수준 또한 다양하다.

김유리 작가

광안리에 대한 인상을 비유하자면 뽕상 아줌마가 투썸플레이스 테라스에서 치즈케이크와 아메리카노를 먹으며 한국일보를 보고 있는 느낌이야랄까. 말하자면 뜬금없고 이상한 조합이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는, 외계인의 나라에 온 듯한 ‘아스트랄’ (astral · 환상적인)한 분위기가 표현할 수 있다.

김승남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사정사무소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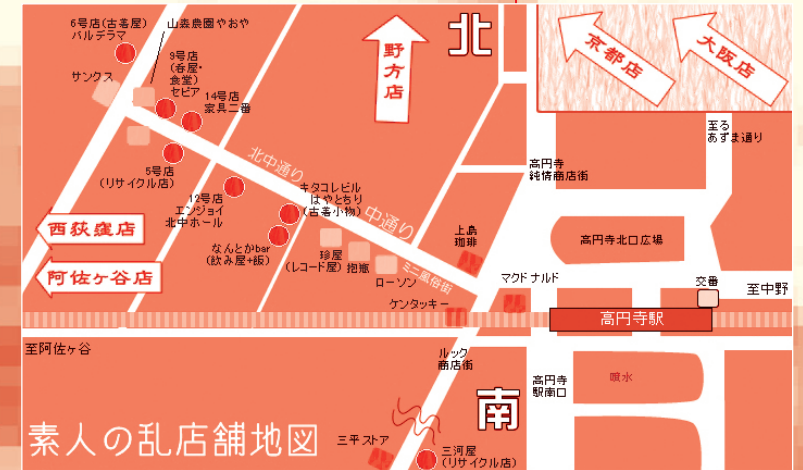
광안리는 온갖 것이 뒤섞여 있는 ‘해물잡탕’ 같은 공간이다. 이런 혼돈과 무질서야말로 진짜 광안리, 부산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 넓지도 않은 해변에 다양한 건물의 규모도 그렇지만 상점, 숙박시설, 주거, 놀이기구까지 섞여 있고, 비엔날레 작가들의 작품과 인조 야자수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의 연령과 수준 또한 다양하다.

‘광안리사람들’ 편집진이 2012년 2월 22일 ‘안녕 광안리’ 4호 편집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뒤부터 시계방향으로 장현정 편집인, 이영희 사진 담당, 이승욱 발행인, 정민정 기획 담당, 김승남 김형곤 편집위원, 김대영 아트디렉터.

TOKYO KOENJI



코엔지
사진제공: 마츠모토 하지메



아마추어반란 상점위치

도쿄 코엔지의 의미 있는 즐거움

류성호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문화기획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루한 세상을 향한 재미난 복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즐겁게 산다는 것'이 '진지하게 산다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보통 열등생과 우등생의 구분을 즐겁게 놀리고 하는 것과 진지한 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생각할 때 즐겁게 산다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 진 마츠모토 하지메(Matsumoto Hajime)의 이야기를 담은 '가난뱅이의 역습'이라는 책은 유쾌함과 통쾌함, 그리고 에너지를 압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실제 2011년 가을 부산의 청춘들과 만남을 가진 마츠모토 하지메는 두 차례의 워크숍과 독립문화공간 아지트에서의 네트워크 술자리 등에서 그가 가진 유쾌함을 즐겁게 토해냈다. 일정부분 정리된 형태로 그와 코엔지의 활동이 소개되는 경우나 대안 및 문화운동의 시선에서 채집된 이야기들을 가볍게 일상 속 에피소드처럼 넘겨버리는 그의 유쾌한 화법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그리고 부산 방문 뒤 한 달이 지난 후 필자를 마을축제 토크쇼에 초대한 마츠모토 하지메에 의해 책과 블로그, 다큐멘터리 등에서 보았던 도쿄 코엔지를 실제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우선 코엔지를 상징하는 '아마추어의 반란' 상점은 개업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붙여진 수를 기준으로 18호점까지 오픈이 되었으며, 코엔지 이외에 교토, 오사카 등에도 위치해 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형식이 아니라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다른 곳은 제외하고 코엔지 거리에 있는 상점들의 주 업종을 살펴보면 마츠모토 하지메가 직접 운영하는 재활용품점과 중고가구점을 비롯해 구제옷가게가 있으며, 주인이 매일 바뀌는 술집 '난또까바', 술집과 함께 2층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바 'SEPIA', 12호점이라 불리는 다목적 공간 등이 주요 공간이다. 물리적인 기본 정보는 그렇다. 그러나 단순히 여행을 가서 그 공간들을 둘러보고 돌아와 코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 코엔지의 매력은 마츠모토 하지메와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픈시킨 상점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기 때문이다.

마츠모토 하지메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B-ART'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그와 그의 친구들, 도쿄 코엔지라는 곳에서 관계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고, 일을 만들어 내는 힘은 사케(술)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2011년 11월 일주일동안 코엔지에 머무르는 시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아침까지 많은 사람들과 술을

마셔댔으니 말이다. 특히 술을 마셨던 곳 중에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난또까바'라는 곳의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의미의 '난또까'라는 말이 상점명이 된 '난또까BAR'는 매일 주인이 바뀌는 컨셉의 독특한 술집이다. 뮤지션인 '나까'라는 주인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사용료만 내면 그 곳에서 자신만의 메뉴로 술집을 하루 동안 운영할 수 있으며, 코엔지에 초대되는 손님(주로 젊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무료로 하루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수익을 여행경비에 보태 쓸 수 있는 재미난 배려를 선물하기도 한다. 실제로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밤섬해적단'이라는 밴드는 한국의 군대식 라면인 뽕글이를 주 메뉴로 운영을 했었으며, 작년에 함께 코엔지를 방문했던 홍콩의 문화공간 'WOOFERTEN' 친구들과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사무국장인 김건우도 하루 동안 난또까바를 운영했다. 컨셉이 재밌기도 하지만 손님들은 더 재밌었다. 보기만 해도 뭔가 드라마틱한 인생을 겪었을 것 같은 여성 록 뮤지션, 패션을 공부하는 유쾌한 한국인 유학생, 미소녀 오타쿠,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 이후 많은 외국인이 도쿄를 떠났지만 아직도 코엔지를 지키고 있는 히피 느낌의 금발 외국인, 사회문제와 혁명을 이야기하는



난또까 BAR

아나키스트 청년, '난또까바'를 당연한 듯 찾아 한잔씩 하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듯 섞이며 코엔지라는 거리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이쯤 되면 코엔지는 젊은이들의 거리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코엔지는 젊은이들만 꿈틀거리는 공간은 아닌 듯하다. 2011년 11월 필자와 홍콩 문화활동가의 코엔지 초대를 결정한 사람은 60이 넘는 그곳의 상가연합회 회장님이었다. 그리고 그 분은 코엔지를 무대로 살아가고 좌충우돌 일을 벌이는 청년들의 명확한 지지자이자 든든한 친구역할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상징 같은 사람이다. 30여 년 동안 같은 곳에서 아주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며 지역을 에너지로 충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 출마까지 강행했으나 보란 듯이 낙선했었고,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함과 동시에 문을 닫는 곳까지 늘어나자 해결책을 찾아 동분서주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마츠모토 하지메와 친구들이 하나둘 상점을 오픈시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리가 활기로 넘치는 과정을 목격하며 다시 한 번 젊은

에너지와 문화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코엔지 거리에 상점을 열고자 할 때 각종 지원방법을 찾아내고 후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다. 어찌 보면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문화활성화 사업과도 닮아 있는 듯 하고, 어찌 보면 초기 홍대처럼 별난 친구들이 모여드는 듯한 느낌도 드는 그런 곳이 코엔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양새가 닮아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일주일 정도 거주하며 관찰하고 이야기했던 코엔지는 사실 재래시장활성화 프로젝트와도 홍대와도 많이 다르다. 그 다른 점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라는 생각을 했다.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때문에 해당 시장의 상인들과 문화활동가들 모두가 성과와 진행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정부지원사업,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둥지를 틀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불러들여 서로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운영하며 기존 지역 주민과 함께 즐거운 반란을 실천하는 코엔지. 그리고 자본에 의해 이미



아마추어반란 12호점. 상가연합회 회장님과 코엔지 마을축제 토크쇼 게스트들.

류성호(부산), Haku(도쿄), Matsumoto Hajime(도쿄), 상가연합회 회장님, Lee Chun Fung(홍콩), Roland(홍콩)

점령당한 듯 보여지는 홍대와 가난뱅이 청년들이 즐거운 삶을 위해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코엔지. 다른 곳과 코엔지가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분석해 내기는 힘들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빌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자본논리에서 자유롭고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투쟁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의 에네르기.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 나누는 파트너도 코엔지 근처라고 할 수 있는 신주쿠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아나키스트 인포숍 'Irregular Rhythm Asylum'과 아나키스트 카페 'Lavanderia'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일을 함께 벌이고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다. 또한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큰 시민중심 움직임이라고 평가되는 Sound Demo를 함께 만들어 내기도 했다. 코엔지 거리 인근은 아마추어의 반란, 빈티지숍과 함께 젊은 뮤지션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20여개의 크고 작은 라이브하우스가 길지 않은 코엔지 거리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4월 11일 코엔지 반원전 Sound Demo에 많은 뮤지션들과 퍼포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같은 날 도쿄 내 다른 지역에서 환경단체 주도로 열린 집회보다 많은 2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운집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코엔지의 힘은 한달 뒤 일본 내 주요 도시 전역에서 Sound Demo가 열리게 되는 기록제가 되었다.



코엔지에서 종종 벌어지는 행사들 사진제공:마츠모토 하지메



아나키스트 인포숍 Irregular Rhythm Asylum



아나키스트 카페 Lavanderia



2011년 11월 코엔지를 처음 방문하고 난 후 2012년 2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일본을 찾은 필자는 청년들로부터 시민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Sound Demo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았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80이 넘는 어르신들까지 1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Save our children, That's our responsibility(아이들을 구하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긴 시간동안 함께 걷는 노부부의 모습과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 사회 변화와 사회 재건은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자고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일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뒤늦은 반성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무엇이 현재 한국에게도 절실한 무엇임을 느꼈다.

Sound Demo가 끝이 나고 해산 지역 상점가 술집 곳곳에 Demo Discount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마츠모토 하지메, 치가야 등의 친구들과 함께 한잔하기 위해 술집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 모두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술집 몇 곳을 돌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밤늦도록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코엔지 거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철학과 그들이 사는 방법으로서의 문화와 그들을 연결하고 일체감을 주는 사건들과 최근 그들이 외치는 변화. 모든 지표들이 부정적인 기준에서 일본을 이야기할 때 희망을 꺾지 않고 반란을 외치며 몸으로 실천하는 코엔지 청년들의 모습에서 함께 살고, 즐겁게 살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 생각이 모여 부산에서 실천하는 청춘들과 코엔지 청춘들의 솔직담백한 네트워크가 시작되고 있다. 바야흐로 부산에도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올 환경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끼마쇼!(함께 가요!)” —



부산문화재단 2020 비전 및 CI 선포식

2012년 1월 31일 부산문화재단은 '재단 2020 비전'과 CI를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1년 한해 동안 준비해 온 재단의 비전 '일상에 스미는 문화예술의 새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와 새로운 CI를 대외에 공표하면서 재단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부산문화의 발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변화와 발전, 지켜봐 주십시오.

행사일시. 2012년 1월 31일 오후 4시

행사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및 1층 로비



1

2

1. 비전 및 CI 선포식
2. <노리단>의 재활용 악기 축하공연



영호남 문화재단 교류협력 MOU 체결식 개최

지역문화분권을 위해 영호남의 문화재단이 힘을 합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문화재단은 광주문화재단과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40여명의 광주문화재단 임직원들이 부산을 방문했고 부산문화재단의 전 직원이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튿날, 광주문화재단 직원들은 아지트, 또따또가 등 부산지역의 문화공간을 탐방했습니다. 이번 MOU체결식을 통해 부산문화재단은 영호남 문화교류의 물꼬를 트고 다른 지역 재단과의 교류협력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행사일시. 2012년 2월 24일 오후 5시

행사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1

2

1. 체결식 부산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 전 직원
2. 인문학 공간 <백년어서원> 방문

2012 부산문화재단 제3기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3월 6일 화요일 부산 시청자미디어 센터 2층 공개홀에서 2012 부산문화재단 제3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남송우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제3기 씨즈닝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 활동사항 안내 및 자기소개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제3기 씨즈닝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 해 봅니다.

행사일시. 2012년 3월 6일 오후 7시

행사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Column

3월 초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국립공연시설 추가 건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자문회의의 참석차였다. 마침 부산국립극장 건립이 추진 중인 상황이었어서 혹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개학의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짬을 냈다. 연구의 핵심은 서울에 집중된 국립공연시설을 점차 전국에 추가 분산 배치하기 위한 근거와 타당성을 찾는 것으로, 부산국립극장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와는 별개다.

보고서 결론부터 요약하면 국립공연시설을 국가주도 방식과 지방정부참여 방식 중 어느 경우로 추진하건 '진흥'의 관점에서는 건립 순위가 경남-부산-대구-인천의 순으로 나타났다.(육성'의 관점에서는 반대 순위가 된다) 즉 운영역량, 정책수요, 관람수요, 공연수요, 프로그램 확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산은 '공연환경 열악', '운영역량 양호'라는 이중적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부산국립극장 건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와 몇몇 행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부진한 성적표가 부산의 국립극장 유치에는 도움이 될 듯하다.

부산의 공연장 사정을 들려달라는 위원장의 주문에 오는 4월 예정인 '미스 사이공' 공연 소식을 먼저 전했다. 지난해

부산문화회관을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고 나서야 350만 도시 부산에서 이 작품이 처음 공연된다는 사실에 위원들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 중 한 위원인 국립극장장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관심을 보이고, 또 다른 위원은 국립극장이나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걱정하기도 했다. 정말이지 걱정이다. 바로 며칠 전 개최된 부산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들을 답답한 마음으로 논의했던 필자로서 무슨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었을까. 이야기 끝에 아직도 부산의 모든 공연장들이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위원들은 이번엔 아득한 역사적 유물을 접한 듯한 묘한 표정을 지었다. 은근히 낮이 뜨거워졌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다. 최근 부산국제합창제가 변화를 맞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모 정치인의 힘에 의해 급조되어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 이 음악제는 예산 삭감 조치를 당했고,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공동위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물러났다. 이 음악제에 관여해 왔던 지역의 젊은 지휘자들이 뜻을 모아 이번 기회에 합창제를 명실상부한 지역음악축제로 살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아 하니 시 당국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희망이 희끗 보인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와 더불어 시 당국의 지원을 받는 음악제로서 지역음악인, 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탄생을 기대한다.

최근 부산예총 회장도 교체되었다. 신임 송영명 회장은 중앙의 지역 홀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당연한 조치다.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을 서울과 수도권이 70% 이상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대응은 언제나 미지근했다. 부산예총이 앞장서고 모든 지역 예술인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할 문제다. 이번에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저항과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부산 문화판에 희망의 씨앗은 싹트고 있다. 부산 예술인들이 자각하고 움직이고 있다. '부산공연문화 선진화를 위한 범 예술인 운동본부'가 지난 2월부터 공연장 관장의 공무원 순환보직을 종식시키려는 서명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때맞추어 부산시는 문화회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 전문가가 맡을 수 있게 한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며칠 전 입법예고했다. 다행스럽다.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순간이다. 부산문화회관에 이어 6개 구 문화회관들도 하루빨리 변화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호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문화행정에 관한 글들이 눈에 많이 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와 예술이 너무 가까워도 화를 부르지만 너무 멀어도 좋지 않은 것 같다. 제자와 후배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스승과 선배가 되고 싶은 마음, 부산을 이끌어가는 중견 예술인들이 모두 이 마음이길 기도한다. —

부산 문화예술의 희망, 그 온도는?

김원명 경성대 음악과 교수

'우리들의 이야기' 참여안내 '우리들의 이야기'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참여마당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바라시는 점과 불호와 관련한 의견, 또는 부산 문화예술 각장르별 비평 등을 보내주시면 몇 건을 채택, '우리들의 이야기'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선정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보내주시는 곳 yoona@bscf.or.kr (2012년 6월 15일까지 / 선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 : 051-745-7222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해 구·군 문화회관, 미술관 및 대형서점 등에 배포됩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e-book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